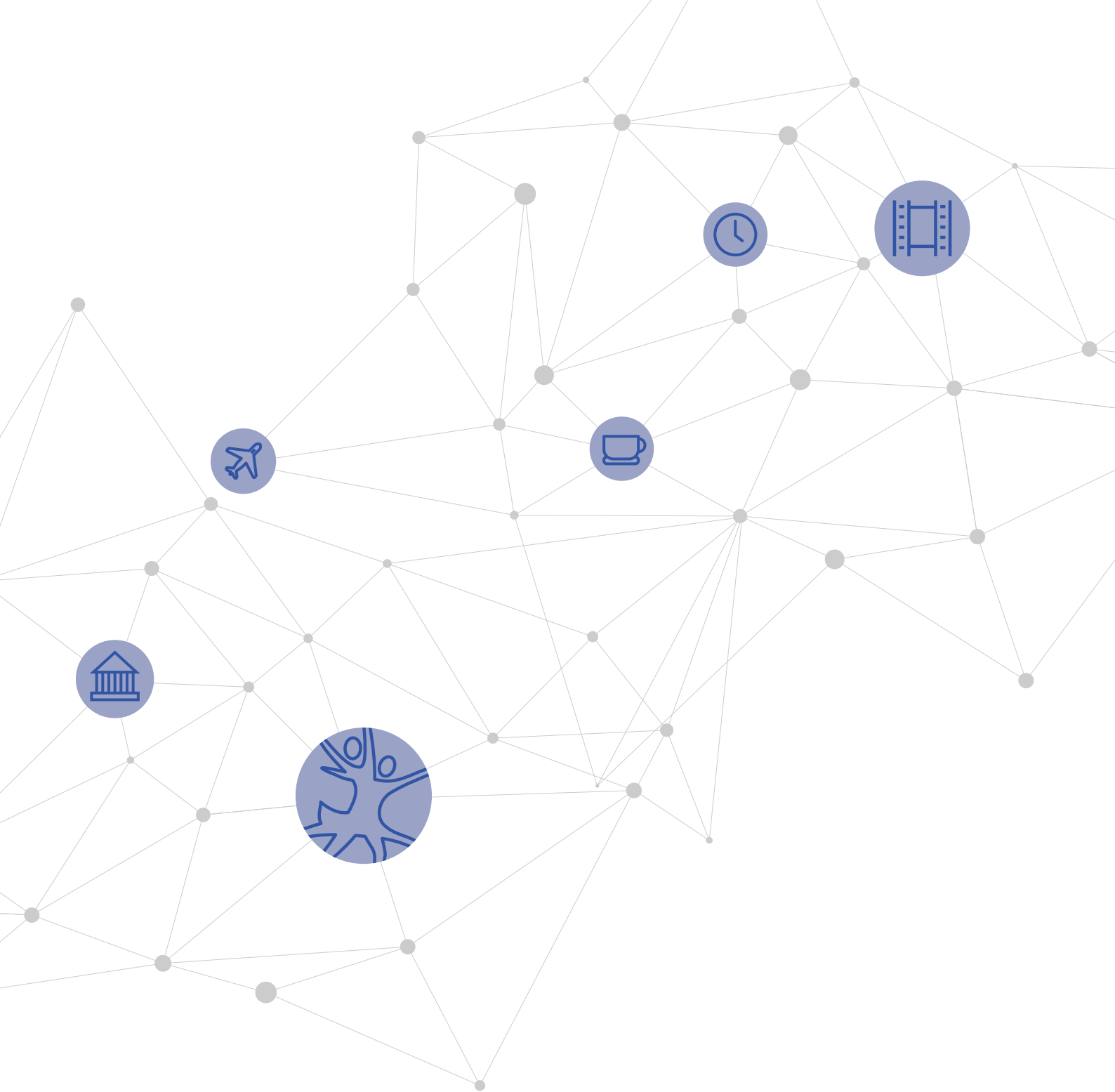




이모
사
민
문
화
향
유
자
재
단
www.sfac.or.kr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

<h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hr/>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현황	12
	제2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의의와 한계	20
	제3절 유사 사례 분석	23
<hr/>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1절 조사 및 결과분석에 대한 개선 방향	32
	제2절 조사 방법 개선 (표본구성 및 유지방안, 조사방식, 조사문항)	36
	제3절 결과 분석 개선 (분석 적절성 검증, 분석 및 진단모델 확정)	40
<hr/>		
제4장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1절 조사 개요	50
	제2절 조사결과 분석	52
	제3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56
<hr/>		
제5장 결론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방안	64
	제2절 서울시 문화통계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과제 제언	70

임나
사당과
자서당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본 조사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여가활동의 관심도와 참여도, 만족도 등 문화향유 실태의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임
 - <문화향수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서울서베이>(서울연구원) 등의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양태를 추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¹⁾, 일반시민들에 비해 매우 높은 문화활동 수준을 보이는 고관여자²⁾ 그룹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음
 - 2014년 첫 조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8개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주민'과의 비교분석으로 지역적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위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음
- 그러나 본 조사는 문화 관련 타 통계조사에 비해 문화활동의 경향성과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한 반면, 조사대상의 비밀관성, 이론적 근거 부족 등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일반시민(서울서베이)-서울문화재단 회원(서울문화재단 조사)-각 자치구별 문화서비스 접점주민(자치구 조사) 간의 문화향유 실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조사대상(모집단 및 표본 추출/관리)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봄
 - 또한 경험적 접근으로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에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 따라 통계관점의 품질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음
- 이러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본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1) <<문화향수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서울에 할당되는 표본 수는 1,200여 명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양태 추정을 위해서 표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서베이>(서울연구원)'는 서울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로 표본 수는 충분하나 문화활동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화 관련 조사항목 증가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영화를 제외한 예술장르에서 일반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향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함에 따라 문화활동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그룹 대상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이 보고서에서 고관여자는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에 관심과 참여가 높은 집단을 칭함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2) 연구 목적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 향상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진단 및 문제점 파악
 - 조사 목적에 입각한 모집단과 조사대상자의 정의 및 표본 추출 방안 도출
 - 조사항목과 설계 내용 등 본 조사 전반에 대한 통계품질 점검
- 조사적용 및 심층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점검과 향후 개선 방안 모색
 - 개선점을 실제 적용·점검하여 향후 활용도 높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 개선 방안 마련
 - 자치구별 문화정책적 진단 및 분석에 활용 가능성 검토
- 서울의 문화통계관리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개선 과제 제언
 - 본 조사를 포함한 서울의 문화통계관리 측면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과제 제언

<그림1.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도출
- 표본설계, 조사내용 등 금년도에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반영하여 실제 적용
- 차년도 혹은 중장기적 반영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언

■ 시간적 범위: 2014년~2016년

- 2014년~2015년 기존 조사 및 개선 방안을 1차 적용한 2016년 조사를 포함

(2) 연구 방법

■ 전문가 자문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존 조사의 점검 및 2016년 조사의 설계

- 2014년~2015년 조사의 문제점 도출
- 조사목적 명확화, 조사대상 설정, 표본할당 및 조사방법 등 조사 설계를 위한 연구 시행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경기문화재단), <사회조사>(통계청), <한국영화소비자조사>(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분야 사례조사 및 분석
-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모델 제시

■ 조사시행 및 결과분석

- 2016년 11~12월 조사시행 및 데이터클리닝
- 조사결과 분석 및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심층 분석 시행
- 통계적 분석결과에 대한 문화정책적 보완사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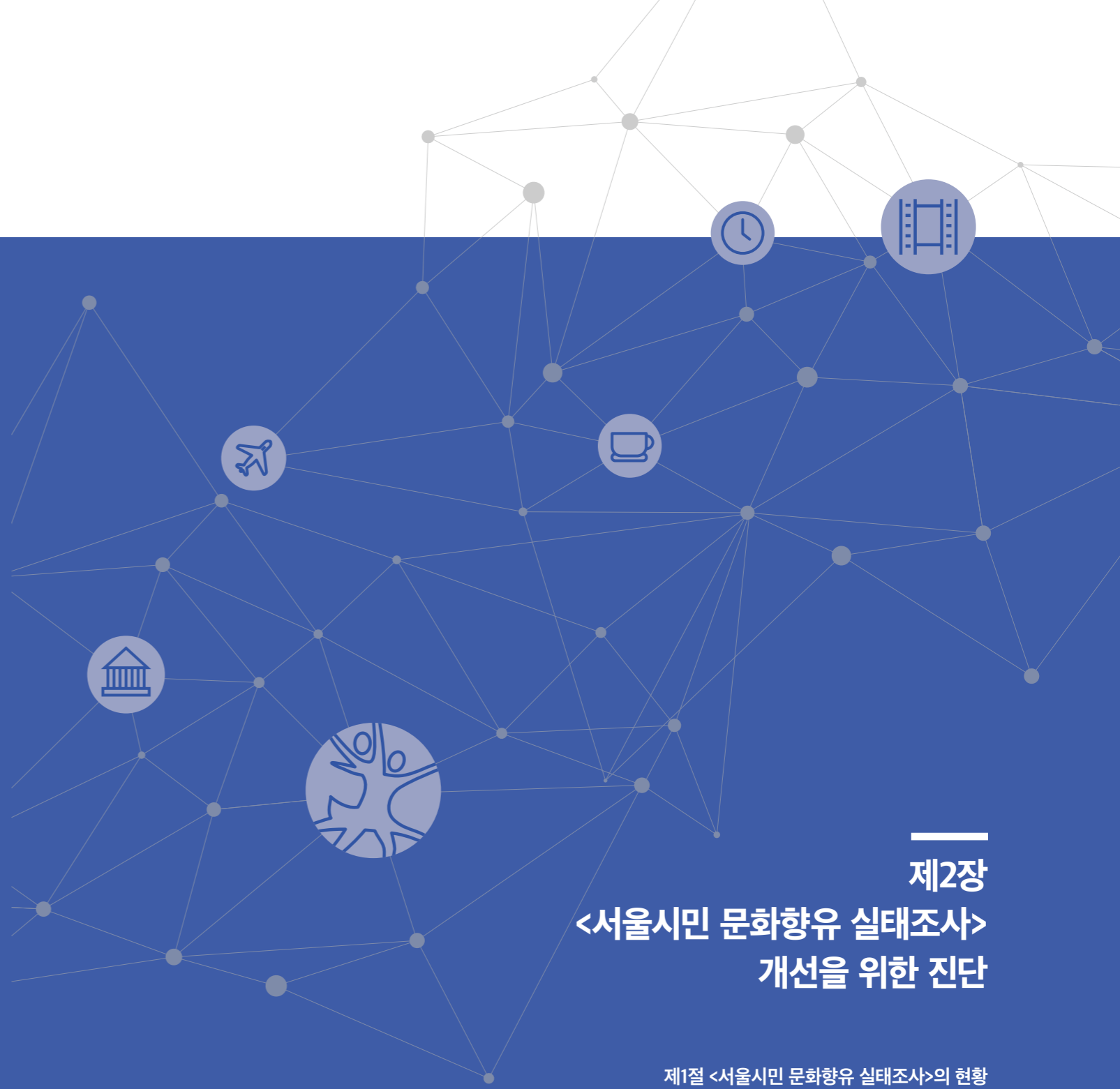
■ 종합분석 및 제언

-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안) 검토

<그림2. 연구 방법>



이민
사건조사
연구소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현황
- 제2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의의와 한계
- 제3절 유사 사례 분석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현황

(1)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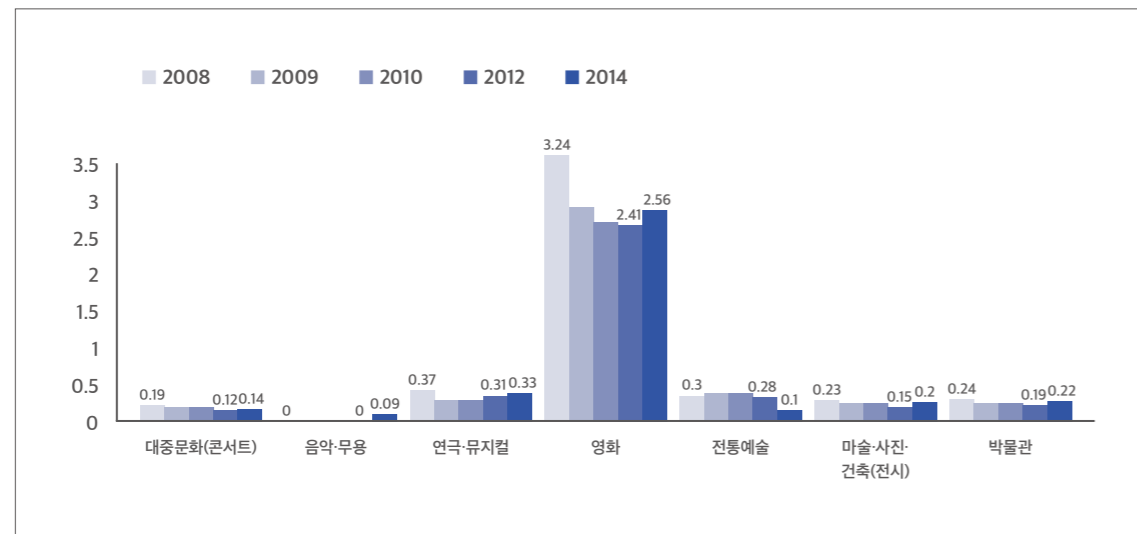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실태파악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서울에 할당되는 표본 수가 1,200여명(전국 1만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추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서울서베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현재 약 10개 내외 항목), 문화 활동의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문화고관여자의 문화향유 실태파악 및 일반시민과의 특성 비교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영화를 제외한 예술장르에서의 문화향수 수준이 연간 0.1~0.3회에 머물고 있어 경향성 파악 등 유의미한 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화활동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문화고관여자의 문화향유 실태를 통해 문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3. 일반 서울시민(서울서베이 응답자)의 문화향수 수준>
출처: 2014년 <서울서베이> 중 문화 관련 문항 종합(서울연구원, 2015년)



■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분석모델 개발

- 자치구별 특성에 걸맞은 분석모델 개발
- 조사결과 및 분석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마련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2) 조사 개요

- 조사명: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조사발행기관: (재)서울문화재단
- 조사연혁: 2014년 첫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총 2회 조사 시행
- 발행주기: 연 1회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격년 조사 추진을 고려 중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이메일 및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2015년 자치구 조사 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병행하기도 함
- 조사대상 및 표본구성
 - 2014년의 조사대상자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고관여자였으며, 2015년에는 자치구 조사를 포함하면서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³⁾으로 확대됨
 - 별도의 표본추출은 없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1. 2014~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14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조사	자치구 조사
조사대상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재단 사업 참여 경험자 (문화고관여자로 지칭)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참여자 (문화고관여자로 지칭)	7개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 (금천, 구로, 강남, 노원, 마포, 성북, 영등포)
유효표본	2,905명	1,498명	5,19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72,348명에 대한 이메일 발송)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72,527명에 대한 이메일 발송)	편의표본추출
조사기간	2014년 12월 2일~12월 26일	2015년 8월 24일~9월 23일	2015년 6월~11월 각 자치구별 상이
조사기관	서울문화재단(조사 및 분석 대행: (주)윌드리서치)		

3)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은 자치구의 문화사업 참여자, 문화정보서비스 이용자(뉴스레터 등), 문화재단 회원 등 각 자치구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을 통칭하여 사용하였음

■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응답자 특성 및 문화·여가활동 관련 5개 분야의 조사문항 구성
- <서울서베이>의 일부 조사문항과 동일하여 비동질 집단 간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조사 설계를 진행함

<표2. 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항목	세부 항목	2014년 조사 문항 비교	2014년 <서울서베이> 문항 비교	비고
문화/여가활동 관심도 및 행태	주로 하는 여가활동	○	○	
	여가활동 동반자	○	○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	○	○	
	문화예술 관심도	○	-	
	문화예술 행사 정보원 문화예술 행사 만족도	- -	- -	
문화예술활동 참여 경험	문화활동 관람 시 주 고려기준	-	-	
	문화활동 관람 (총 횟수/본인지불 횟수/총비용)	△	△	스포츠통계기관망 보기 삭제 (<서울서베이>는 본인 지불횟수없음) 축제 보기 추가
	문화활동 동반자 유형	-	-	
	유료 문화콘텐츠 이용	○	○	
문화예술 관련 교육/동호회/ 봉사경험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 경험	○	○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 애로사항	-	-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의향	-	-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의향 분야	-	-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	○	-	
	주된 동호회 활동 분야	-	-	
	향후 동호회 활동 참여의향	-	-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및 시간	○	○	2015년 <서울서베이>에도 조사 시행	
문화예술 활동 관련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 만족도	○	-	
	문화생활 재관람(참석) 의향	○	-	
	문화생활 참여 빈도 및 금액 변화	-	-	
	예술행사의 보완 필요 사항	-	-	
지역관련 문화활동 및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 내 문화예술 중요도	○	○	
	주 관람 지역	-	-	
	서울 및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	○	2015년 <서울서베이>에도 조사 시행
응답자 특성	거주지 문화환경 불만 이유	-	-	
	삶의 만족도	○	○	2015년 <서울서베이>에도 조사 시행되나 내용이 다름
	거주지역	△	○	2014년 구단위, 2015년 동단위
	성별, 연령	○	○	
	서울거주기간(서울, 현주소지, 현 자치구)	△	△	현 자치구 거주 항목 추가
	최종학력	○	○	
	직업	○	△	<서울서베이>는 문화예술종사자 보기 없음
	예술계 종사자의 주 활동 분야	○	-	
	예술계 종사자의 활동 경력	○	-	
	가구 구성 형태 및 구성인원 수	-	-	
기혼 유무	○	○		
자녀 유무	○	△	<서울서베이>는 가구주 조사에서만 확인 가능	
가계 소득	○	○	2015년 보기 세분화	

※ ○: 2015년 조사와 질의 및 보기문항이 동일하여 비교분석·시계열분석 등이 가능한 문항
 ※ △: 2015년 조사와 동일한 문항이나 질문 형식 또는 보기 불일치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거나, 비교 시 재검토가 필요한 문항

(3) 주요 성과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첫 시행 및 정책적으로 눈여겨 볼 '문화향유 특성 그룹' 도출

- 2014년 조사에서 세대/결혼/자녀유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문화에 대한 욕구, 참여도와 참여 방식, 문화생활의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8개의 '문화향유 특성 그룹'을 도출하였음
- 이를 활용하여 문화향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별 분석도 용이함
- 또한 '자기만족 추구형'과 '가족행복 추구형' 두 가지로 특징되는 문화소비의 특성도 도출할 수 있었음
 : 20대 문화 열광족, 30대 화려한 싱글녀, 40대 블루 싱글녀, 60대 액티브 시니어, 50대 낭만족의 일부는 '자기만족 추구형'으로 문화예술 관람 관심도, 중요도, 횟수, 지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30대 육아맘, 40대 컬처맘, 40대 프렌디의 일부는 '가족행복 추구형'으로 주로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 중심 여가활동을 많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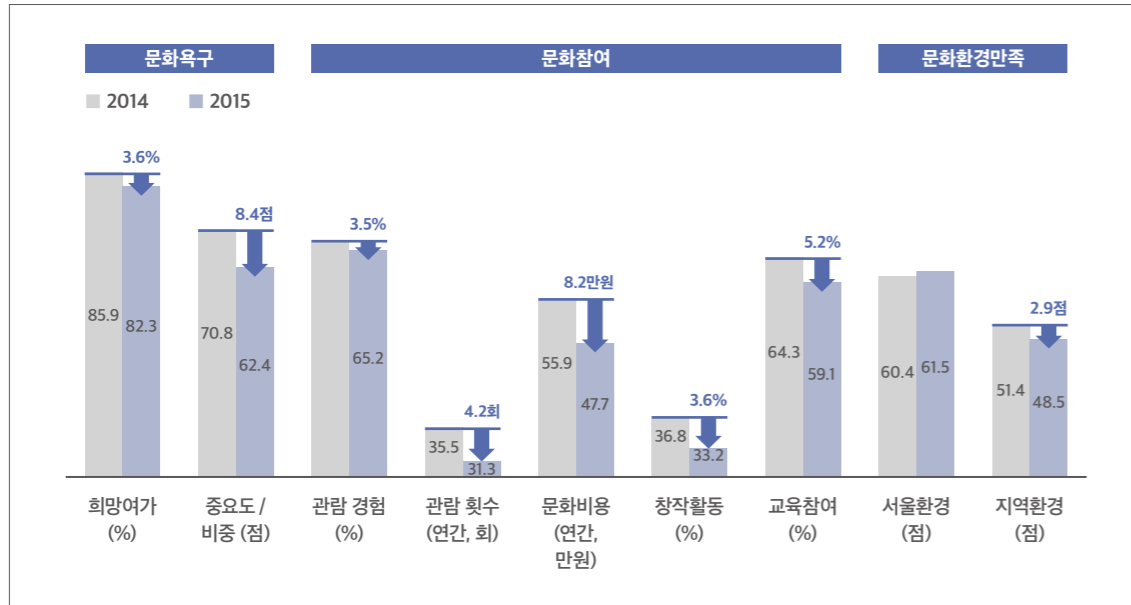
<표3. 8개의 문화활동 특성 그룹>

세대	8개 문화활동 특성화 그룹
20대	-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 열광족>
30대	-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 - 문화 최전방에서 몰려나 육아의 행복에 빠진 <육아맘>
40대	- 성장하는 자녀들과 집 근처에서 놀고 싶은 <프렌디> -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향유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컬처맘> - 30대처럼 화려하지만 조금 외롭고 피곤한 <블루 싱글녀>
50대	- 양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강좌에 열광하는 7080 <낭만족>
60대	- 문화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

■ 2015년 2차 조사 통해 연도별 전반적 문화활동 수준의 변화 및 원인 분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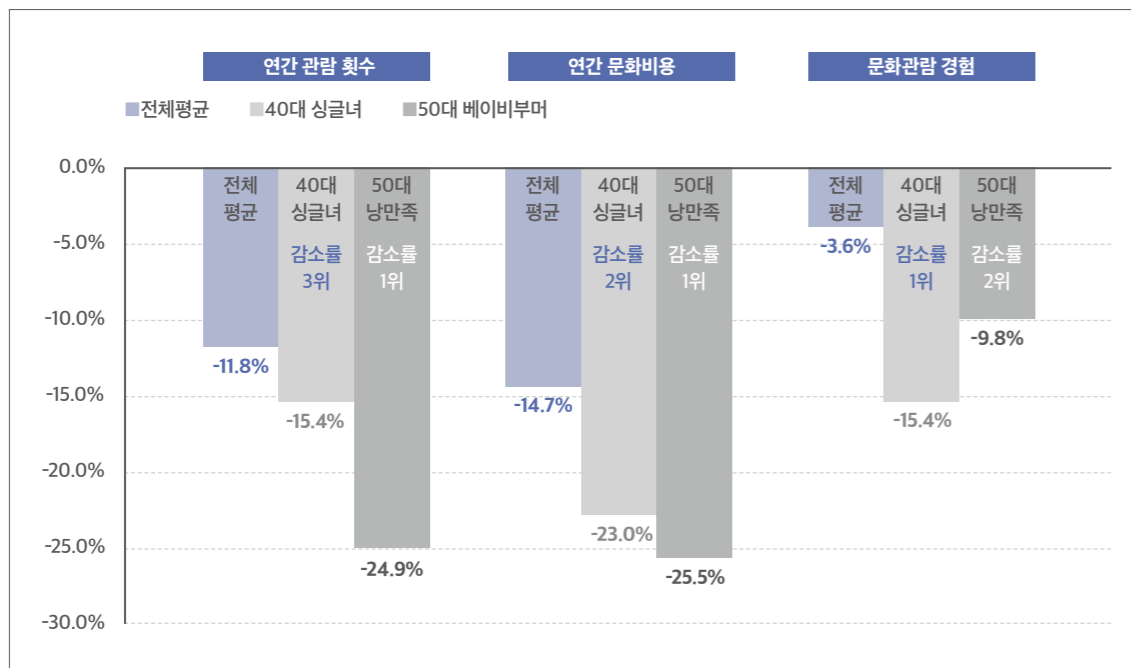
- 조사응답자(고관여자 그룹)들을 특성화 그룹으로 나누고 문화정책 패널로 연속 참여하는 응답자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문화시장에서의 시민문화향유 실태의 변화와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2014년과 2015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은 68.7%에서 65.2%로(▽3.5%), 관람 횟수는 전년도 35.5회에서 31.3회로(▽11.8%), 문화관람 연간 총 지출비용 또한 559,632원에서 477,358원으로(▽14.7%) 감소했음. 2014년과 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450명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비교적 문화에 적극적인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위축된 것을 재확인함

<그림4. 2015년도 서울시민 문화향유 수준 위축 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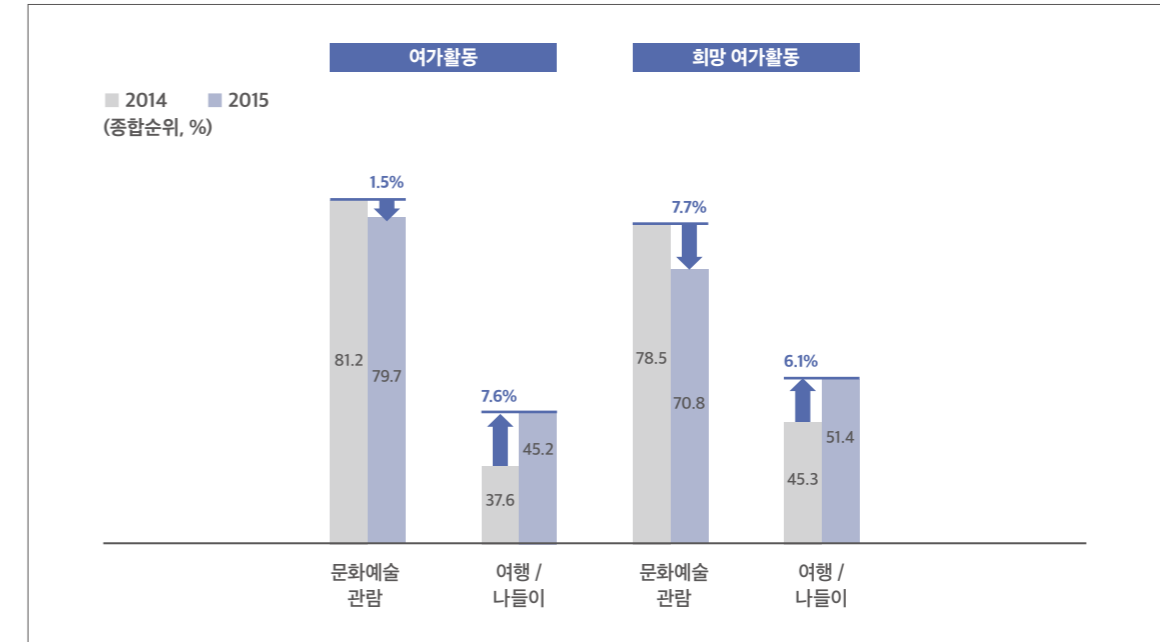


- 또한, 단순한 계량적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실태 변화의 원인과 시사점을 진단하여 제시
- : 2015년 조사결과 특히 '40대 싱글녀'와 '50대 베이비부머'의 문화생활이 크게 감소했고, 20대의 경우 문화생활 대신 여행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 위와 같은 결과와 타 사회조사 및 소비자 동향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감경기 저조로 문화활동의 지출이 먼저 감소하였고, 여행, 휴식 등으로의 여가트렌드 변화가 문화예술서비스 이용률의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림5. 2015년도 조사 분석결과: 40~50대의 문화생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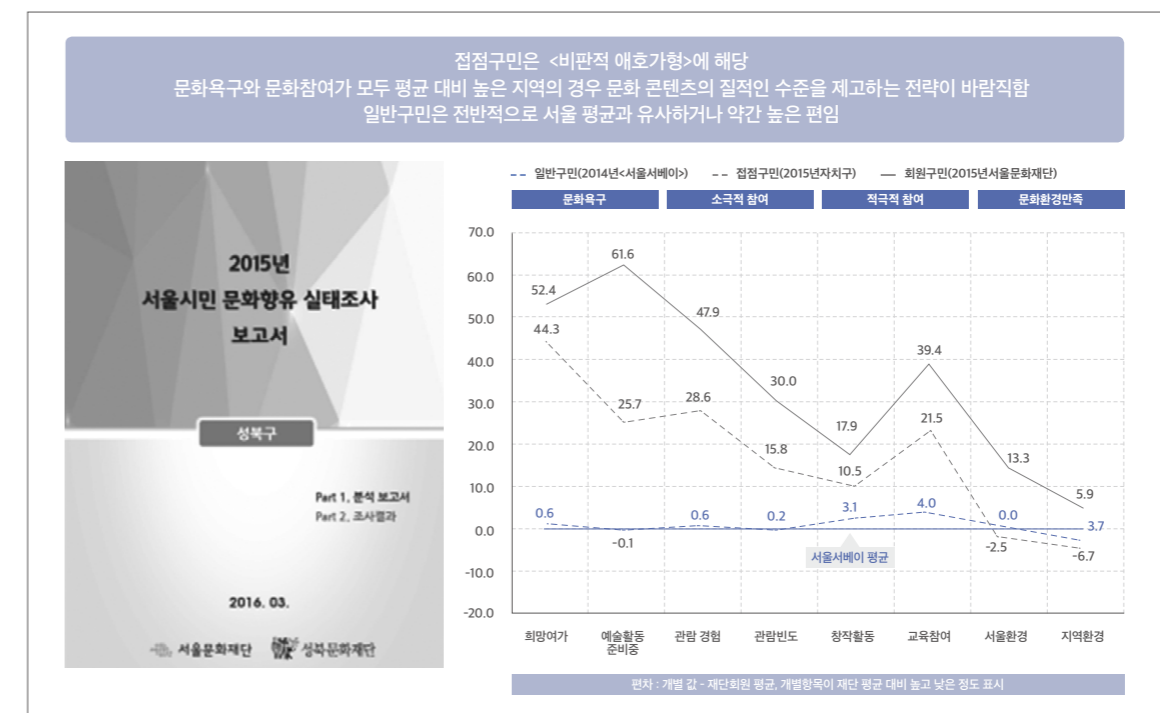
<그림6. 2015년도 조사 분석결과: 여가트렌드 변화가 문화예술의 또 다른 위기였음을 시사>



■ 자치구별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등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시도

- 2015년에는 7개의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문화향유 실태조사 시행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더불어 문화정책 전문가로부터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이러한 실태조사나 컨설팅이 기초단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시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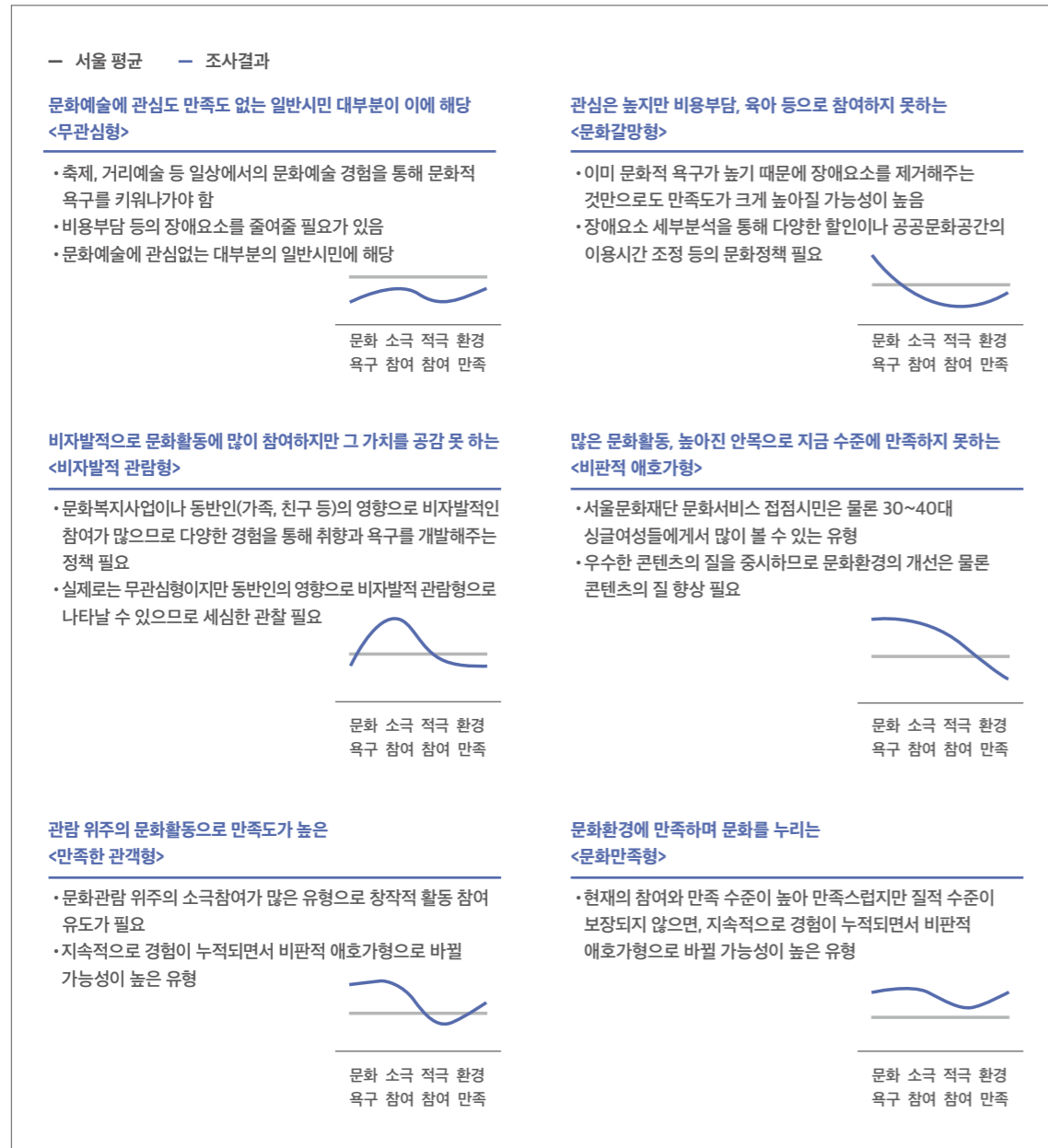
<그림7. 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자치구 보고서(성북) 및 자치구 접점구민 유형분석(자치구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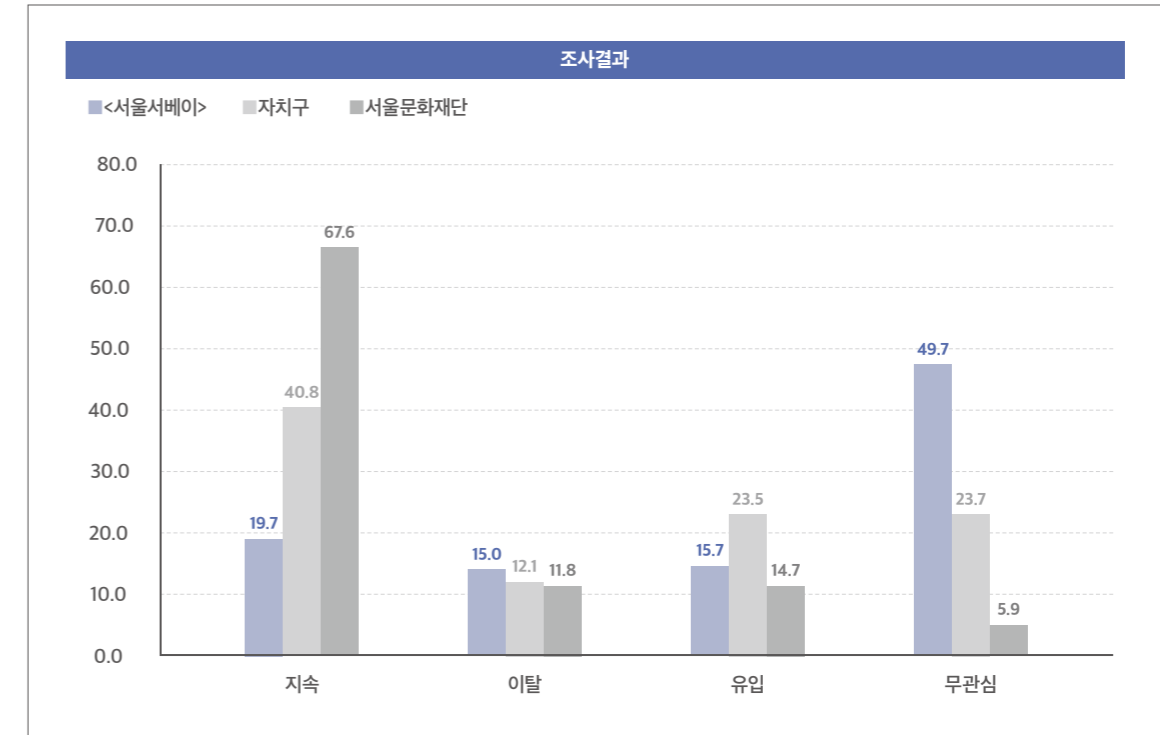
■ 실태파악에서 나아가 정책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진단-처방 모델 개발

- 2015년에는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특정그룹이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대책 처방이 가능한 분석모델 도입을 시도하였음
- 문화적 욕구, 실질적 문화활동 참여,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Desire-Practice-Satisfaction) 등 3개 항목에서 서울시민 평균값 <서울서베이>와의 편차를 비교하고 6개 정책적 관심 그룹에 대한 진단-처방 모델을 제시하였음
- 또한 지역별 특성, 문화서비스로의 유입/이탈 행태 분석 등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진단 모델 개발을 시도함
- 이론적 검증과 엄정한 조사를 통한 보완이 더 필요하지만, 단순히 정책적 성과 관리를 위해 문화통계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문화정책의 진일보를 수반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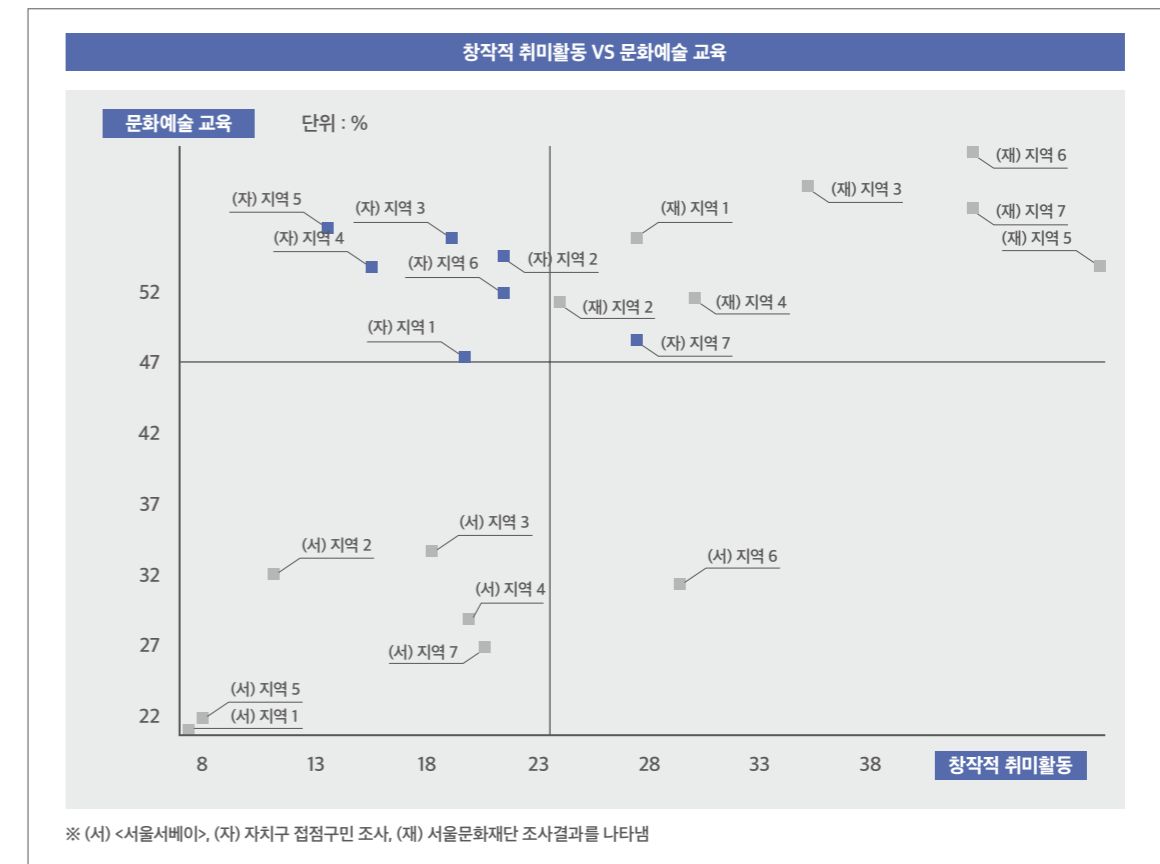
<그림8.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에 따른 분석유형 및 제언방향>



<그림9.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유입/이탈 분석>



<그림10. 지역별 특성 비교 분석>



제2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의의와 한계

(1) 조사의 의의

■ 문화고관여자를 세분화하여 문화예술의 소비와 활용에 대한 다이내믹스 분석 시도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조사결과는 설문 항목이 <서울서베이> 문화 관련 문항에 비해 매우 폭넓고 심층적이며, 계층/지역/지표별 특성화된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대상별 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함

■ 서울시 및 자치구 분석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정책실행 관련자 지원 역할

- 주거환경, 생활환경과 근접한 단위에서 공공문화서비스(잠재) 이용자 파악
- <서울서베이>가 자치구민 전반에 대한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의 자치구 문화정책 수혜자에 대한 파악은 부재하였음
- 광역과 기초 단위의 문화행정서비스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입체적 "파악"의 가능성 제공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선도적 시도

- 서울지역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 조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문화고관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문화향유의 다이내믹스(dynamics)를 살펴보고자한 이 조사는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로서 매우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기초단위의 자치구별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2015년 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타 광역시도에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조사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진화적인 구축: 자치구 단위의 조사 참여 유도 등


- 서울지역은 단일한 도시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가 모여 구성되고 있음. 자치구는 각 지역별로 문화 기반시설 및 인적자원, 문화정책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특성과 정체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편임
- 2015년에는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의 조사 참여 유도를 통해 조사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 되어야할 점이기도 함

■ 문화통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역할 수행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트렌드, 서울 문화환경 균형발전 전략, 문화생활비 세액공제 법률안 발의 등 다양한 문화이슈 및 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인용되기도 함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그림11. 언론보도 사례-국민일보(2015.01.31.) 문화향유 트렌트 보도>



www.kmib.co.kr

20대 '문화열광족' 60대 '액티브 시니어'...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

세대별로 스타일 제각각... 30대 '화려한 싱글녀' 연간 문화 지출비 최다

입력 : 2015-01-31 02:16/수정 : 2015-01-31 18:42

세대별로 문화를 즐기는 양태는 제각각이다. 20대는 불안한 현실을 문화에서 위로받는 '문화열광족', 30대는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 또는 문화를 즐길 거리가 없는 '육아맘'으로 분류된다. 40대는 성장하는 자녀들과 집 근처에서 노는 게 편한 '프렌디'이거나 본인은 문화소외층이지만 아이를 위해 문화를 찾는 '컬처맘', 또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조금 외롭고 피곤한 '블루 싱글녀'에 해당한다. 50대는 드디어 양육의 무게에서 벗어나 문화강좌에 폭 빠져 열광하는 '낭만족', 60대는 문화생활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로 특징지어진다.

서울문화재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결혼, 출산, 양육, 은퇴 등 삶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향유 및 소비 형태를 조사해 8개 그룹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20대는 연간 문화관람 총 횟수와 문화비용 지출액도 다른 세대보다 많은 문화열광족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취업난 등으로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문화로 위로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여성은 결혼 여부에 따라 화려한 싱글녀와 육아맘으로 구분된다. 20대에 비해 경제력이 나아진 화려한 싱글녀는 문화예술 비용으로 가장 많은 연간 82만여원을 지출했다. 반면 결혼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하게 되는 육아맘은 문화예술 관심, 관람 횟수, 삶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있는 40대는 남성 그룹인 '프렌디(Friend+daddy)'의 경우 여가활동 동반자로 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컬처맘은 관람 횟수가 가장 낮았으나 회당 평균 연간 관람 지불액이 30대보다 증가한 것은 자녀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낭만족은 자녀 교육 때문에 사그라졌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면서 문화강좌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나 창작 취미활동이 가장 높아 문화예술로 행복한 향훈을 보내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kim@kmib.co.kr

<그림12. 언론보도 사례-시사저널(2016.08.10.) 문화생활비 세액공제 법률안 발의 인용 사례>

영화도 보고 세액도 공제받자...“문화생활비 15% 세액공제”

김해영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재석 기자 | jayko@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10(수) 16:11:25



문화생활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부산 연제)은 연극·영화·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용성이 이 정부의 국정기조임에도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은 직전 해보다 3.5%나 하락했다. 또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과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해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지난해 11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동법 개정안과 통합·조정됐다.

(2) 조사의 한계

■ 조사명과 조사대상의 불일치 및 조사목적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 초래

- 조사명은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조사는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한 서울문화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결과 인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조사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 목적을 보다 명확히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설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모집단에 대한 정의 한계 및 비표본오차 발생 예측

- 문화고관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활동의 다이내믹스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모집단을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표본대상으로 설정한 서울문화재단 회원이 개념적으로 문화고관여자와 일치한다고 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문화고관여자로 정의한 모집단과 서울문화재단 회원의 개념의 유사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4% 수준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비표본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됨

■ 문화활동 특성그룹 도출은 매우 흥미로운 시도이나 통계 이론적 검토 부족

-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각 연령대 내에서 결혼유무 등의 추가적인 구분을 한 현재의 그룹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통계적인 기법을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
- 통계 제공 시 표본오차와 무응답으로 인한 추정량 오차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 통계적 검토가 부족

■ 일반시민과의 비교를 통해 다이내믹스(dynamics)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비교 설문문항이 제한적임

- <서울서베이>의 관련 항목과 설문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일반시민과 문화고관여자 간의 비교를 통해 다이내믹스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서울서베이> 관련 항목 개수의 한계로 보다 심층적인 비교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문화고관여자 대상의 조사를 통해 다이내믹스 파악은 가능하나, 관객(참여자) 개발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 정책 수립에 본 조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 설문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치구별 조사 설계(조사방법, 표본구성 등)의 차이로 인한 일관성 결여

- 자치구 조사의 경우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vs 혼합조사)의 차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면접조사의 경우 표본할당이 아닌 참여자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편향적 결과 도출의 우려가 있음
- 구청 및 기초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문화사업 참가자, 문화센터 방문자 등 조사참여자가 혼재하면서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치구의 문화향유 수준에 대한 자료해석 및 비교가 어려웠음

■ 일부 자치구는 조사응답의 참여가 저조하여 조사 신뢰도 저하 및 분석 포기 사례 발생

-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조사응답자 수가 현저히 적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기도 하였으며, 세부유형별 분석을 시도 했을 때 유의미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아 세부분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제3절 유사 사례 분석

(1) 문화향수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파악을 위한 문화 향유 경로와 방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생활 진흥을 도모
- 문화 향유 및 활동조사의 문화수요 및 욕구파악과 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점과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선행 조사와의 시계열 결과 분석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 및 추세형태를 도출하여 신뢰할 수 있는 표준자료로서 다양한 관련 부처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

■ 주요연혁

- 1988년 01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실시
- 1991년 05월: 통계청 승인(제1132-21-03호)
- 1991년 05월: <문화향수 실태조사> 실시
- 1993년 01월: 승인번호(제11301호)로 변경
- 2005년 12월: 통계작성 변경승인(조사주기 및 표본크기 조정: 2,000명→3,000명)
- 2008년 08월: 통계작성 변경승인(표본크기 조정: 3,000명→4,000명)
- 2010년 12월: 통계작성 변경승인(표본크기 조정: 4,000명→5,000명)
- 2014년 08월: 통계작성 변경승인(조사항목 변경, 조사범위 및 표본크기 확대: 5,000명→10,000명)
- 2016년 09월: 통계청 승인번호 변경(제11301호→제113001호)

■ 조사 개요

-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승인통계)
- 법적근거: 승인번호 제113001호
- 조사주기: 2년에 1회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의 만 15세 이상 남녀
- 유효표본: 10,716명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 조사기간: 2016년 9월 1일~11월 11일
-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조사 실시: 나이스알앤씨 주식회사)

■ 조사항목

<표4.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적 속성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출생년월, 동거가구원 수,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예술행사 관람 실태(횟수, 만족도, 의향), 복합문화예술 관람실태(복합문화예술 행사 참여 경험), 직접관람 실태(관람 지역, 방법, 동행인, 정보습득경로, 예술행사 선정기준, 관람 시 어려움 등), 매체를 통한 예술행사 관람 실태(이용 경험, 주 이용매체, 만족도), 문화예술 관련 지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경험(유아기 및 청소년기 교육 경험, 1년 이내 참여 경험, 만족도 등), 문화예술 교육 실태(교육 시설, 교육 시 보완점, 교육 방법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 이용 실태	문화예술 활동 공간 이용(1년 내 이용 횟수, 만족도 등),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방문(문화행사 참여 시 어려운 점 등)
문화 관련활동	문화자원봉사 활동(경험 및 횟수),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및 동호회 성격, 참여 빈도 등)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1년 내 방문 경험 및 만족도 등), 축제 관람 실태(1년 내 관람 경험 및 만족도 등)

(2) 국민여가활동조사

■ 조사목적

-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하고, 또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연혁

- 2006년 05월: 여가백서 내 <국민여가활동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 실시
- 2007년 05월: 통계작성 승인
- 2007년 06월: 공표협의 조정
- 2010년 07월: 통계작성 변경승인(조사대상장 변경: 만 10세 이상 → 만 15세 이상)
- 2012년 09월: 통계작성 변경승인(표본크기 조정: 3,000명 → 5,000명)
- 2014년 08월: 통계작성 변경승인(표본크기 확대: 5,000명→10,000명)
- 2016년 09월: 통계청 승인번호 변경(제11314호→제113014호)

■ 조사 개요

-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승인통계)
- 법적근거: 승인번호 제110314호
- 조사주기: 2년에 1회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의 만 15세 이상 남녀
- 유효표본: 10,602명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 조사기간: 2016년 9월 1일~11월 11일
-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조사 실시: 나이스알앤씨 주식회사)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 조사항목

<표5.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적 속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동거 자녀 유무, 거주 지역, 가구주 여부 및 관계,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유무, 직업, 월평균 소득(본인/가구 전체)
여가활동 참여 실태	한번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여가활동 유형),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유형, 동반자, 빈도, 시간, 비용, 만족도), 여가활동 목적,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경력(지속적 여가활동 유무, 분야, 여가활동 지속기간, 정보습득 여부), 여가비용(비용 및 만족도, 희망 여가비용)
평일 및 휴일 여가활동	평일 여가활동(평일 여가시간 및 만족도 등), 휴일 여가활동, 여가시간(평균 여가시간, 충분정도, 활용정도, 희망여가시간 등), 휴가 활용(휴가 유무, 일수 등), 연휴 활용
여가공간	여가공간(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등)
다양한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활동여부, 유형), 사회적 여가활동(자원봉사 경험, 활동 분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여가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여가인식(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일 여가의 균형, 향후 여가 시간 활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여가 인식), 행복수준

(3)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 조사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도출
- 경기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주요연혁

- 1998년: 1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2002년: 2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2007년: 3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1,95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2010년: 4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2,263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2013년: 5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2016년: 6회차 조사(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2,5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 유효표본: 2,500명
-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가구당 1명 조사)
- 표본추출: 지역별, 연령별 다단계층화 인구비례 배분(2014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조사기간: 2016.2.17.~3.15.(28일간)
- 조사기관: 경기문화재단, ㈜글로벌리서치

■ 조사항목

<표6. 2016년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적 속성	성별, 연령, 세부지역, 교육수준,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여가생활	여가시간 활용실태, 향후 늘릴 생각 있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시 장애요인, 월 평균 여가 비용,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 행사 관람여부 및 횟수, 문화예술 행사관람 만족도, 문화예술 행사 관람동기, 문화예술 행사 관람방법,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동행자,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장애요인, 문화예술 행사 관람 정보 습득경로, 향후 관람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고려요인, 예술 참여·체험활동 경험여부 및 횟수, 예술 참여·체험활동 만족도,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예술 참여·체험활동, 예술행사 참여·체험 시 장애요인
생활문화활동	생활문화활동 인식, 생활문화활동 참여 형태, 생활문화활동 분야, 생활문화활동 참여 빈도, 생활문화활동 공간, 생활문화활동 목적, 생활문화활동 장애요인, 생활문화활동 및 행사관련 관련 정보 습득경로, 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최근 1년 간 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문화예술 교육	강좌·학습 형태 문화예술 교육 경험 시기, 강좌·학습 형태 문화예술 교육 수강 여부, 강좌·학습 형태 문화예술 교육 현황 및 만족도, 문화 관련 강좌 및 강습 장소, 예술 참여·체험활동 선호 분야, 향후 수강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장애요인, 문화예술 교육 개선사항
문화시설이용	문화공간 이용 경험 여부 및 횟수, 문화공간 이용 시 시설 위치, 지역별 문화공간 평가, 도립 문화시설 인지도, 도립 문화시설 방문여부 및 횟수, 도립 문화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도립 문화시설 시설 만족도, 향후 방문 의향이 있는 도립 문화시설, 경기문화재단 인지도, 경기문화재단 도립 문화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인지도, 문화재생산업 인지도, 유희지 활용에 대한 인식
문화유산	역사유적지 방문 여부 및 횟수, 향후 방문 의향이 있는 역사유적지, 경기도 내 추천하고 싶은 역사유적지, 경기도 역사유적지 방문 시 애로사항
지역축제	지역거리축제 방문율, 향후 방문 의향이 있는 축제, 지역별 축제 평가, 추천하고 싶은 축제, 경기도 지역거리축제 방문 시 애로사항, 지역거리축제 관련 개선사항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거주 시·군 문화환경 만족도, 경기도 문화환경 만족도, 거주 시·군 문화발전 위한 경기도 역할, 선호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경기도 연상 이미지, 경기도의 문화적 특성, '경기도 문화' 연상 이미지, '거주 시·군의 문화' 연상 이미지, 문화예술의 중요성, 가족의 문화적 영향, 행복지수

(4) 사회조사

■ 조사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해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연혁

-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
- 1978년: 사회지표체계 수립(한국개발연구원 공동연구)
- 1979~1984년: 총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 1985~1996년: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하고 심층조사(항목수 확대)
- 1997년: 연 2회(4, 9월) 조사로 변경(상·하반기 2개 부문씩 조사)
- 1998~2005년: 연1회 조사로 환원(3개 부문씩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조사)
- 2006~2007년: 매년 3~4개 부문씩 부문별 3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 2008년: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조사명칭을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로 변경
- 2011년: 조사대상 변경(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 조사개요

- 통계종류: 조사통계(승인통계)
- 법적근거: 승인번호 제10118호
- 조사주기: 매년(각 부문별 2년 주기)
- 조사대상: 약 25,704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1,548개 조사구, 조사-구당 15~18가구)
-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방법 병행
- 조사부문: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전체 10개 부문으로 조사
- 조사기관: 통계청

■ 조사항목(2017년 5개 조사부문 총 74개 항목 중 '기본사항, 문화와 여가'만 정리)

<표7. 통계청 사회조사 중 문화와 여가 관련 조사항목>

부문	조사항목
기본사항	①성별 ②생년월일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⑥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⑦ 성취에 대한 만족도 ⑧ 주관적 만족감 ⑨ 거처의 종류 ⑩ 점유형태 ⑪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⑫ 가구 소득
문화와 여가	①신문 ②독서 ③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④레저시설 이용 횟수 ⑤국내 관광여행 횟수 ⑥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⑦여가활동 ⑧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⑨여가 활용 만족도 ⑩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⑪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조사목적

- 현재 서울시는 세계적 사회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각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작성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수용하여 서울시가 도시발전 지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지표 체계를 만들고, 지표에 대한 자료 구축을 위해 행정자료 및 가구조사, 외국인조사를 실시함
- 서울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 발전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울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 정책의 객관적 검증 및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연혁

- 2003년 1월: <서울서베이> 기본 계획 수립
- 2003년 4월: 서울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 설계
- 2003년 11월: 가구 및 사업체조사 실시
- 2007년 10월: 외국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 2009년 10월: 외국인조사 표본 확대(1,000명→2,500명)
- 2011년 10월: 가구 순환조사(매년 조사→2년 주기 분야별 조사)

■ 조사 개요

- 통계종류: 조사통계(승인통계)
- 법적근거: 승인번호 제20111호
- 조사주기: 매년 조사(문화 분야는 2년 주기 시행)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 유효표본: 20,000가구(가구원 45,609명)
- 조사방법: 가구 방문, 가구원 대상 면접조사(단, 부재 시 유치조사 병행)
-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 조사기간: 2016년 10월 1일~10월 31일
- 조사기관: 서울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연구원

■ 조사항목(문화/여가 관련 항목 해당)

<표8. 2016년 서울서베이 조사항목(문화/여가 관련 항목)>

구분	세부 항목
문화활동	연간 문화활동 관람 횟수 및 총 지불비용, 문화콘텐츠 유료 이용 경험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자치구 개최 지역축제나 지역문화시설 참여 경험
문화환경 만족도	자치구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활동 애로사항
여가활동 형태	주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동반인, 희망 여가활동, 휴가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중요성, 참여횟수(문화예술분야 항목 있음)

■ 기타 특이사항

-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광/여가, 문화 등의 분야는 격년주기로 순환조사 시행
 - ▶ 모듈 A: 복지, 안전재난, 가치의식, 정보참여, 여성가족
 - 모듈 B: 교육, 환경, 교통, 문화, 여가
 - ▶ BSC지표(보육/문화환경/교통/보행만족도) 등 정책지표는 매년 조사
- 2014~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서울시민과 문화고관여자와 비교를 위해 조사문항의 일부를 <서울서베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6) 한국영화소비자조사

■ 조사목적

- 전국에 거주하는 영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소비 양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연혁

- 1999년: <영화관객성향조사> 명칭으로 조사 시행
- 2007년: <영화소비자조사>로 명칭 변경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 2008년: 일반소비자, 고관여집단을 구분하여 조사결과 분석 시행
- 2016년: <극장 영화소비자 조사>와 <온라인 영화소비자 조사> 분리하여 발표

■ 조사 개요(2016년 극장 영화소비자 조사기준)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대상: 2017년 1월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59세 남·여(온라인 조사 패널 대상)
- 유효표본: 2,089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법
- 표본추출: 인구 구성비(2016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로 대상 선정
- 조사기간: 2017년 2월 6일~2월 17일
- 조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주)메가리서치

■ 조사항목(2016년 극장 영화소비자 조사기준)

<표9. 2016년 극장 영화소비자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적 속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학력, 직업,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동거인 수
영화관람 일반지표	매체별 영화관람 경험률, 매체별 영화 관람 편수
영화 취향	자주 보는 영화 장르, 선호하는 영화 국적
영화 관람 행동 유형	관람 영화 선정 시 고려요인, 영화 광고 접촉 경로, 영화 선정 시 주 참조 정보원과 획득 경로, 영화 관람 동반자, 극장 관람 시 영화 선택 시점, 극장 영화 개봉일 기준 관람 시점, 극장 선택 기준, 극장 입장권 구입 방법, 신규 좌석요금제 인지도, 신규 좌석요금제 도입 후 극장 관련 관련 변화 및 체감 관람료, 극장 내 매점 이용 형태 및 가격 적절성, 상영 전 광고 경험/체감시간/인식, 아이맥스(IMAX)/3D/다양성영화 이용 실태, 영화관람 이용 의향, 매체별 선택 이유,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식, 독립/예술영화 관람
매체별 이용 현황	매체별 개봉일 기준 관람 시기, 관람평의성 요소, 재관람 경험

■ 기타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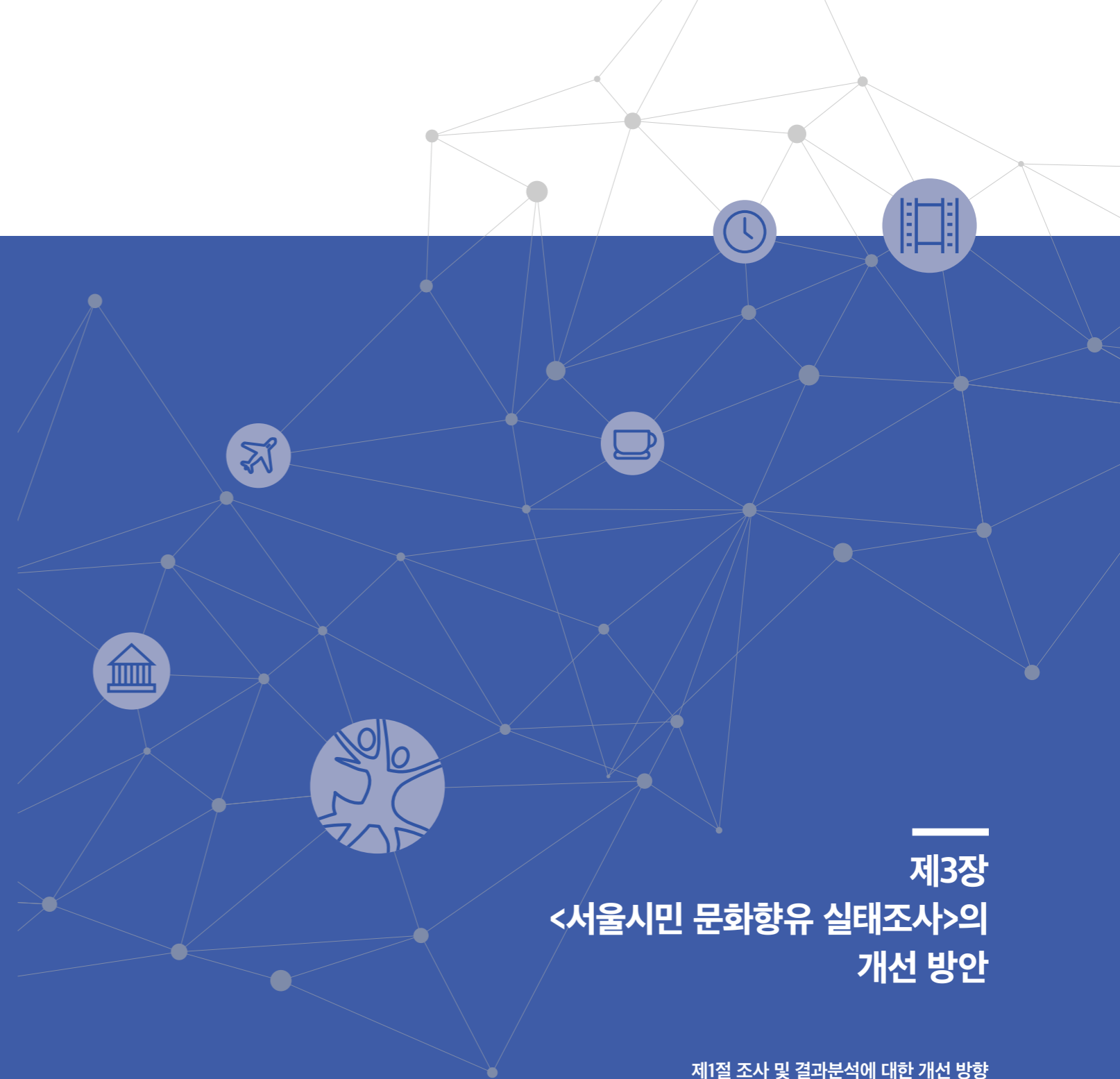
- ‘일반소비자’, ‘고관여집단/Heavy User’,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결과 분석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고관여집단을 만 19~34세의 남녀로 정의하고 이를 나이와 성별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별도로 영화소비 실태에 따라 Heavy User집단을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⁴⁾

4) ① 고관여 집단

- 남성 고관여 집단 A: 만 19~23세 남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9.3편)
- 남성 고관여 집단 B: 만 24~29세 남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15.5편)
- 남성 고관여 집단 C: 만 30~34세 남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9.3편)
- 여성 고관여 집단 A: 만 19~23세 여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9.3편)
- 여성 고관여 집단 B: 만 24~29세 여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15.4편)
- 여성 고관여 집단 C: 만 30~34세 여성 집단(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 9.3편)

② Heavy User

- 극장 Heavy User: 최근 1년 간 극장 영화 관람 편수가 10편 이상인 집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 제1절 조사 및 결과분석에 대한 개선 방향
- 제2절 조사 방법 개선(표본구성 및 유지방안, 조사방식, 조사문항)
- 제3절 결과 분석 개선(분석 적절성 검증, 분석 및 진단모델 확정)

제1절 조사 및 결과분석에 대한 개선 방향

(1) 온라인 조사패널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으로 활용

- 기존의 본 조사와 <서울서베이>의 비교를 통해 '일반시민'과 '문화고관여자'간의 문화향유 실태 차이가 큰 것이 밝혀짐
 - 2014년 <서울서베이> 및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비교 시 문화 관람 횟수 및 지불비용 등의 조사결과가 약 10배가량 차이 남
 - 문화예술은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계속 접해본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계속 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과 문화고관여자 간의 차이는 기존 선행연구 및 경험적 판단으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일반시민과 문화고관여자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개선방향 모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음
- 조사목적 고려시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실태 파악 위한 조사설계 반드시 필요
 - <서울서베이>를 통해 2년 단위로 문화 분야의 10개 내외 문항으로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정책지표 조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본 조사에서 원하는 모든 문항을 설문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문화향수 실태조사>나 <서울서베이>와 같이 대면조사의 방법으로 서울지역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 인력, 활용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조사목적 및 여건 등을 종합하였을 때 온라인 조사 패널을 활용한 일반시민 조사를 제안함
 - 일반시민 조사를 위해 리서치 업계에서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제안함
 - 예산, 인력 등의 조사여건은 물론 문화관심집단과의 특성 비교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에 조사방법 차이로 인한 체계적 차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메일 주소 확보 등의 문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조사는 어려운 편임
 - 온라인 패널의 경우 IT 문화에 익숙한 개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있지만 본 조사의 목적과 여건 상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임
 - 특히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조사항목에 대한 일반시민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며, <한국영화소비자조사>를 포함하여 이미 리서치 업계의 패널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리서치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한계 보완 방안 병행
 - 리서치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에서는 '마땅히 바람직한' 혹은 '긍정적'응답을 함으로써 실제의 인식·참여와는 다르게 응답을 하는 등 편향성이 나타나기도 함. 또한 '정보가 개인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취향은 예술향유를 유도'⁵⁾하는 경향이 있어, 온라인 활용도가 비교적 높아 정보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패널의 문화향유 실태는 일반시민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타 연령에 비해 고령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고령인구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왜곡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는 온라인 조사와 함께 면접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혼합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제안함

5) 차민경, 최연식, 이창진(2015). 온라인 미디어 시대의 관객개발을 위한 문화자본, 정보자본, 사회자본의 활용 전략 연구. 문화경제연구, 18(2), 99-129.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2)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정의 및 참여자 확대 노력

- 문화고관여자에 부합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 목록 마련 노력
 -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이해의 차이, 정의 부재, 모집단 추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모집단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연구와의 비교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추상적 정의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나, 고관여자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보다 다양한 수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편의 및 조사가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조사대상 확대
 - 기존 조사응답자는 문화고관여자라고 정의하였으나, 명확히는 서울문화재단 회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고관여자의 의미에 부합하는 조사 참여자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따라서 서울시 문화본부 및 서울시 산하 문화기관 회원 등의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현실적 여건 고려 시, 온라인 전수조사 방식으로 문화고관여자 조사 유지

- 한정된 예산 등 여건 고려 시 온라인 조사 도구 활용
 - 개인 면접조사는 주로 가구 방문 조사로 이뤄지는데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에 조사대상자가 없는 부재시간의 증가 및 사생활 보호 등의 조사환경 변화로 면접조사 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 수집되는 정보의 통계적 가치는 그리 높아지지 않고 있음
 -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전화 거절 및 불응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응답률이 낮아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응답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시간에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조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응답할 경우를 구별할 수 없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국가승인통계 작성이나 유한모집단의 모수추정을 위한 표본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본 조사의 경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원하는 규모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음
- 모집단에 대한 정보 불안전으로 인해 전수조사 방식 진행
 - 조사 방법론적 측면에서 모집단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표본설계와 추정방안을 통해 표본을 조사하며 비표본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수조사는 규모가 작거나 비표본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조사에서만 일반적으로 고려됨
 -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는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본 조사의 특성 및 조사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 부족 등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불안전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전수조사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음

(4) 별도의 자치구 조사 필요성 검토 및 조사대상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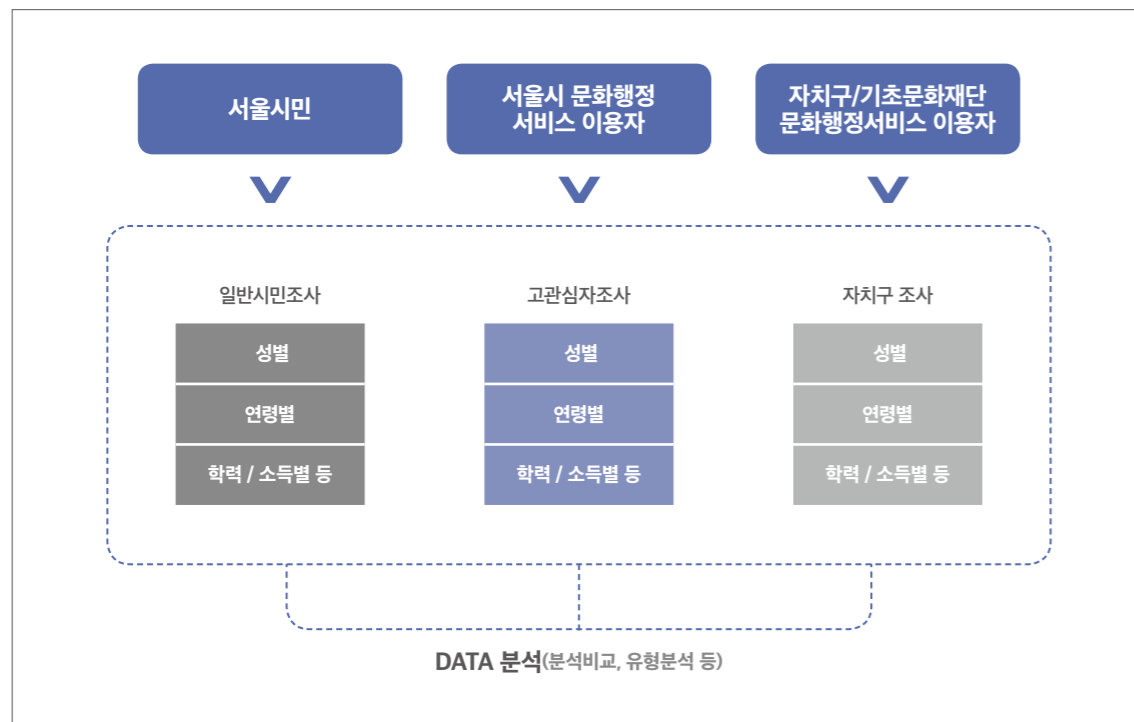
■ 별도의 자치구 조사 필요성 검토

- 2015년 조사에서는 자치구별로 조사를 시행했으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이 각기 상이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비교에 있어 한계가 드러남
- 자치구별 문화향유 특성을 알아보고 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위해 시도하려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여건상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비교집단으로서 일반시민 조사의 결과를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조사 방식으로 채택한 조사 패널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하나 이는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할 것임
- 따라서 별도의 자치구 조사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2~3개의 시범조사를 제안함
- 혹은 별도의 조사에 투입할 예산,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시민 및 문화고관여자 조사결과 중 해당 지역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표본 규모 및 조사 응답자 현황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응답자들이 해당 자치구의 일반주민 혹은 문화서비스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치구 조사의 모집단 성격 규정 명확화

- 별도의 자치구 조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조사에서도 문화고관여자와의 조사대상 성격 및 조사방법의 통일이 바람직 함으로, 자치구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정하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통일할 필요 있음

<그림13. 조사설계 초기 모형>



(5)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 개선

■ 조사응답자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고려한 설문 재구조화

- 기존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연구진의 재검토를 통해 조사응답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 진행
- 응답 예상시간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설문은 통합하는 등의 재구조화 시행

■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한 설문문항 및 보기항목 보완

- 여가동기 및 제약과 관련한 이론, 타 조사의 설문내역 등을 참고하여 내용 개선

(6) 기존 분석기법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및 이론적 근거 보완

■ 생애주기별 8개 특성유형은 2014년에 처음 유형화한 것으로 2016년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 8개 특성그룹으로 전체를 나눌 때 약 20%정도의 남성이 유형화되지 못함
- 연령별, 결혼여부, 자녀여부, 성별 외에도 학력, 소득 등의 주요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따른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욕구-참여-만족>모델에 대한 대표 지표를 재정의하고 관련 이론적 근거 보완

- 설문문항의 변경에 따라 <욕구-참여-만족>모델에 대한 대표지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의 대표지표는 <서울서베이>와의 비교추정을 위해 동일한 지표만 포함할 수 있었으나 조사 설계를 변경하여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욕구-참여-만족>모델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석모델을 활용한 유형화할 때 군집분석과 같이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제2절 조사 방법 개선

(1) 온라인 조사패널을 통해 '일반시민'조사 본격 도입 및 조사 설계

- 리서치 업체의 조사패널 활용에 따라 조사규모와 표본추출방법에 대해 연구진 논의를 거침
- 조사규모는 예산 여건에 따라 당초 1,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연구진 논의를 통해 조정하여 2,000명으로 확정

<표10. 표본 및 조사방법 참고>

구분	2014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015년 한국영화 소비자조사
전체 표본 수 (전국 단위)	10,039	10,034	2,006
서울할당 표본 수	1,217	1,218	441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인구 구성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로 협조요청 메일 발송을 통해 대상 선정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패널 활용한 인터넷 조사

■ 일반시민 조사의 표본집단은 유의할당하여 조사한 후 인구 구성비를 참고하여 가중치 적용하여 결과 도출

- 서울시민 전체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표집하여 표본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전체 조사규모를 확대하는 것에는 여러 여건의 한계가 있음
- 총 2천명인 조사규모에 맞춰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시 특정지역의 조사표본수가 현저히 적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유의할당하여 조사 시행 후 결과 도출 시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연령별·성별·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

<표11. 조사 시행을 위한 표본유의할당>

구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도심권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400
동북권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400
서북권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400
서남권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400
동남권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400
합계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50	150	150	150	2,000
	350		350		350		350		300		300		

<표12.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적용>

구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도심권	3	3	8	8	9	9	10	10	10	9	11	14	104
동북권	21	20	52	51	56	54	60	60	57	60	63	78	632
서북권	7	7	19	20	22	23	23	23	20	21	23	30	238
서남권	19	17	52	52	61	57	57	55	53	55	59	70	607
동남권	15	14	33	34	39	43	41	44	36	38	38	44	419
합계	65	61	164	165	187	186	191	192	176	183	194	236	2,000
	126		329		373		383		359		430		

■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50대 및 60대 이상 표본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혼합 조사로 추진

- <201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⁶⁾은 전국 평균 85.1%이며, 서울지역은 86.7%임
- 조사대상이 되는 연령 중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자 편중이 우려되는 바, 50대와 60대 이상은 온라인 조사와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 조사방식으로 추진
- 50대 및 60대 이상의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여 동일한 조사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60대 이상만 혼합조사를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재검토 필요

(2) 문화관심집단 재정의 및 조사 대상 확대

■ 조사가능성을 고려한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재정의 및 명칭 변경

- 기존 조사에서의 '문화고관여자'에 대한 정의 및 용어에 대한 문제인식에 따라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고관여자'라는 명칭은 관여정도가 높다는 뜻으로 <한국영화소비자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명칭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명칭임
- 2016년 조사에서는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에 관심이 높은 집단을 '문화관심집단'으로 정의하고 서울의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서울시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서울시 산하의 문화기관 회원, 서울문화재단 회원 등)를 조사대상으로 정함
- 실제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주요 문화정책대상이 되므로, 서울의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및 뉴스레터 수신 등의 행위를 한 시민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6)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선 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9.7	76.1	100.0	100.0	99.6	100.0	100.0	100.0	99.9	99.6	97.0	90.6	73.3	48.7	17.5	8.0

지역·성·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중 서울지역만 재편집)

■ 문화관심집단에 대한 구분은 관심도에 대한 정성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명확히 모집단을 규정하기 어려워 표본구성이 불가능함. 따라서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및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협력을 통해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조사 참여를 위한 메일발송 등 추진(서울시통합회원 중 문화 관련 뉴스레터 수신자 및 서울시립미술관 뉴스레터 수신자 대상 메일링 시행)
- 실제 조사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통합회원의 성별, 사는 지역, 연령 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현재는 불가능하여 모집단 추정이 어려우므로 표본할당 혹은 사후층화방식을 통한 가중치 적용 등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자치구 조사 개선 및 한계

■ 자치구 조사는 시범조사의 성격으로 총 2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별도의 조사를 기획함

- 조사대상이 되는 자치구는 기초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각 1곳으로 정하되, 2개 자치구 중 최소 1곳은 2015년 조사에 참여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전년도 조사결과와 경향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임의선정 후 이에 응한 2개 자치구가 최종 선정됨
- 자치구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자치구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정의하고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는 문화재단 회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를,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는 자치구 홈페이지 내 문화관광 사이트 이용자/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를 대상으로 조사 시행함

■ 하지만 별도의 자치구 조사는 참여 저조로 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조사 중 해당 지역의 데이터 추출을 통한 지역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차선을 선택함

- 조사방법의 일관성을 위해 온라인 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조사 자치구의 홈페이지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참여 저조로 인하여 결과의 유의미성을 도출하기 어려워 해당조사결과는 폐기함
- 이는 아직 기초 지자체의 문화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를 보완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됨

(4) 조사항목 및 보기문항 변경 등 설문 개선

■ 기존 조사항목을 기초로 설문이해도, 응답용이성 등을 고려한 재구조화 시행

- 전년도 조사항목을 기초로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지, 한 문항으로 충분한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설문구성을 재정리함
- 더불어 보기로 제시된 내용의 적합성 및 척도 등도 함께 개선

<표13.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항목	세부 항목	2015년	2014년	비고
문화/여가활동 관심도 및 행태	하루 평균 여가 시간(평일/휴일)	-	-	
	여가의 충분성	-	-	
	주로 하는 여가활동	△	△	보기 변경
	여가활동 동반자	○	○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	△	△	보기 변경
문화예술 관람 경험	문화활동 관람 현황(총횟수/본인지불 횟수/총비용) 및 만족도, 향후 의향	△	△	<문항 변경> 세부장르 변경 만족도 및 향후 의향 추가
	문화활동 동반자 유형	○	○	
	문화예술 행사 관람지역	△	△	관람지역/활동지역 구분
문화예술 참여 경험	문화활동 관람(참석) 애로사항	△	△	보기 변경
	문화예술 관련 활동(교육, 취미, 봉사) 참여 경험 및 형태, 만족도, 향후 의향	△	△	<문항 변경> 구분 및 참여 형태 등 변화 만족도 및 향후 의향 추가
	문화예술 교육 장소	△	△	문항 및 보기 변경
	문화예술 교육 애로사항	△	△	문항 및 보기 표현 변경
	문화예술 교육 참여 장애요소	-	-	
	문화예술 취미활동 동호회 애로사항	-	-	
	문화예술 취미활동 개인참여 애로사항	-	-	
	문화예술 취미활동 장애요소	-	-	
	문화자원봉사활동 장애요소	-	-	
	문화 관련 동호회 장애요소	-	-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관람지역, 삶의 행복	문화예술 활동 참여지역	△	△	관람지역/활동지역 구분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 만족도	△	△	문항 표현 변화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	○	○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	○	
응답자 특성	문화예술 중요도	△	△	문항 표현 변화
	삶의 행복	○	○	척도 변경
	거주지역	○	○	
	성별, 연령	○	○	
	서울거주기간(서울, 현주소지, 현 자치구)	○	○	
	최종학력	○	○	
	직업	○	○	
	예술계 종사자의 주 활동 분야	○	○	
	예술계 종사자의 활동 경력	○	○	
	가구 구성 형태 및 구성인원 수	○	○	
기혼 유무	△	△	보기 변경	
자녀 유무	○	○		
가계 소득	○	○		

※ ○: 2016년 조사와 질의 및 보기문항이 동일/유사하여 비교분석·시계열분석 등이 가능한 문항

※ △: 2016년 조사와 동일/유사한 문항이나 질문형식 또는 보기불일치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거나, 비교 시 재검토가 필요한 문항

제3절 결과 분석 개선

(1) 생애주기별 유형분석 검토

■ 생애주기별 유형분석은 세대,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 등을 기준으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적인 8개의 그룹을 도출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향유 경향을 살펴보는 분석임

- 2014년 첫 조사 시행 시 세대,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 등에 따라 문화에 대한 욕구, 참여도와 참여 방식, 문화생활의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음
- 20대, 50대, 60대는 연령대 전체가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출산·육아 등으로 변화가 많은 30~40대는 그 중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일부 그룹만 세분화하여 8개의 문화활동 특성 그룹을 도출하였음

<그림14. 2014년 주요 조사결과 요약- 전 세대 및 성별 비교>

그룹 구분	문화예술 관심도 (점)	문화 예술의 중요도 (점)	문화예술 관람 횟수 (연간 평균 총계)	문화예술 지불금액 (연간 평균 총계)	문화예술 경험전반 만족도 (점)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 (점)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점)	삶의 만족도 (점)
20대 전체 (=문화 열광족)	93.0	77.1	39.9	694,281	69.1	63.1	49.3	70.1
남성	91.1	75.7	38.1	410,454	68.6	63.8	50.9	71.1
여성	93.6	77.5	40.3	769,371	69.2	63.0	48.8	69.9
30대 전체	91.8	72.2	37.3	639,597	67.9	59.3	51.2	71.0
남성	92.8	72.3	36.1	528,730	67.0	69.6	51.0	68.5
여성	91.5	72.2	37.8	680,811	68.2	59.2	51.3	71.9
화려한 싱글녀	93.3	78.1	44.0	821,262	68.1	58.0	50.1	69.2
육아맘	87.1	57.0	24.4	364,625	68.6	61.6	54.8	77.2
40대 전체	87.2	63.1	30.1	450,311	67.3	60.1	52.6	71.8
남성	88.5	64.9	34.3	451,050	64.3	55.9	48.3	69.6
프렌디	86.5	61.5	23.8	402,655	64.6	59.5	52.7	72.1
여성	86.5	62.3	28.1	449,954	68.7	62.1	54.6	72.8
컬처맘	84.7	57.1	20.8	337,693	69.5	63.0	56.5	74.4
블루 싱글녀	90.6	75.3	46.8	755,992	68.0	60.4	49.7	69.7
50대 전체 (=남만족)	91.4	70.1	31.6	342,575	71.4	59.4	52.7	72.7
남성	92.0	68.5	34.3	383,024	71.1	56.3	53.3	70.1
여성	91.1	71.2	30.0	317,774	71.5	61.3	52.4	74.3
60대 전체 (=Active Senior)	89.2	72.6	38.6	283,768	70.3	58.1	55.4	74.4
남성	88.0	72.6	40.2	330,612	71.6	58.7	52.9	74.2
여성	92.0	72.7	35.0	173,045	67.0	56.8	61.4	75.0
응답자 전체 평균	90.8	70.8	35.5	559,632	68.5	60.4	51.4	71.3

■ 중요한 생애사건으로 꼽히는 결혼 및 자녀여부 등으로 30~40대를 세분화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방식으로, 유형화의 통계적 타당성 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책대상으로서 주목할 대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해당 유형분석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유의미함

- 하지만 기존 8개 특성그룹으로 분류 시 30~40대 남성 중심으로 전체의 10~20% 가량이 배제됨 (2014년 17%, 2015년 9.9%, 2016년 일반시민 20%, 문화고관여자 18%)
- 이는 조사대상자를 통계적 방법을 정밀하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기보다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별·연령별 인구통계학적 구분만으로는 실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렵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와 조사결과 간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상식적·경험적 판단과 해당 주요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진행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생애주기별 유형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의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에서 제시하는 여가생활주기에 따라 검토해 볼 때에도 비교적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문화정책대상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효한 특성그룹으로 볼 수 있어 본 유형분석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림15.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특징(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구분	여가생활주기 1단계 (참여·확장기)				여가생활주기 2단계 (선택·집중기)			여가생활주기 3단계 (지속·몰입기)			
	유년 초기 (~7)	유년 후기 (8~13)	청년 초기 (14~19)	청년 후기 (20~23)	성인 초기 (24~29)	성인 중기1 (30~39)	성인 중기2 (40~49)	성인 후기 (50~59)	노인 초기 (60~69)	노인 후기 (70~)	
생애 주기 단계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			
중요 생애 사건 (life events)	유치원 교육시작	초등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직장 입문	결혼 및 자녀 초등학교 입학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의 독립 및 결혼	은퇴	배우자 사망	
특징	초기여가사회화 단계				여가생활의 전환 단계			여가유지 단계			
life-course의 다양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통상적인 생애과정의 단계를 거침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각 개인의 생활양식의 패턴이 다양화되면서(학업의 연장, 골드 미스 등 싱글족 증가, 조기 은퇴, 이혼 및 재혼 증가 등)기존의 life-course와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생애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 더불어 개인의 생활양식 패턴이 다양해지고 사회여건상 집중 조명해야 할 새로운 특성 그룹이 나타나면서 문화정책적으로도 주목해야할 그룹을 검토해볼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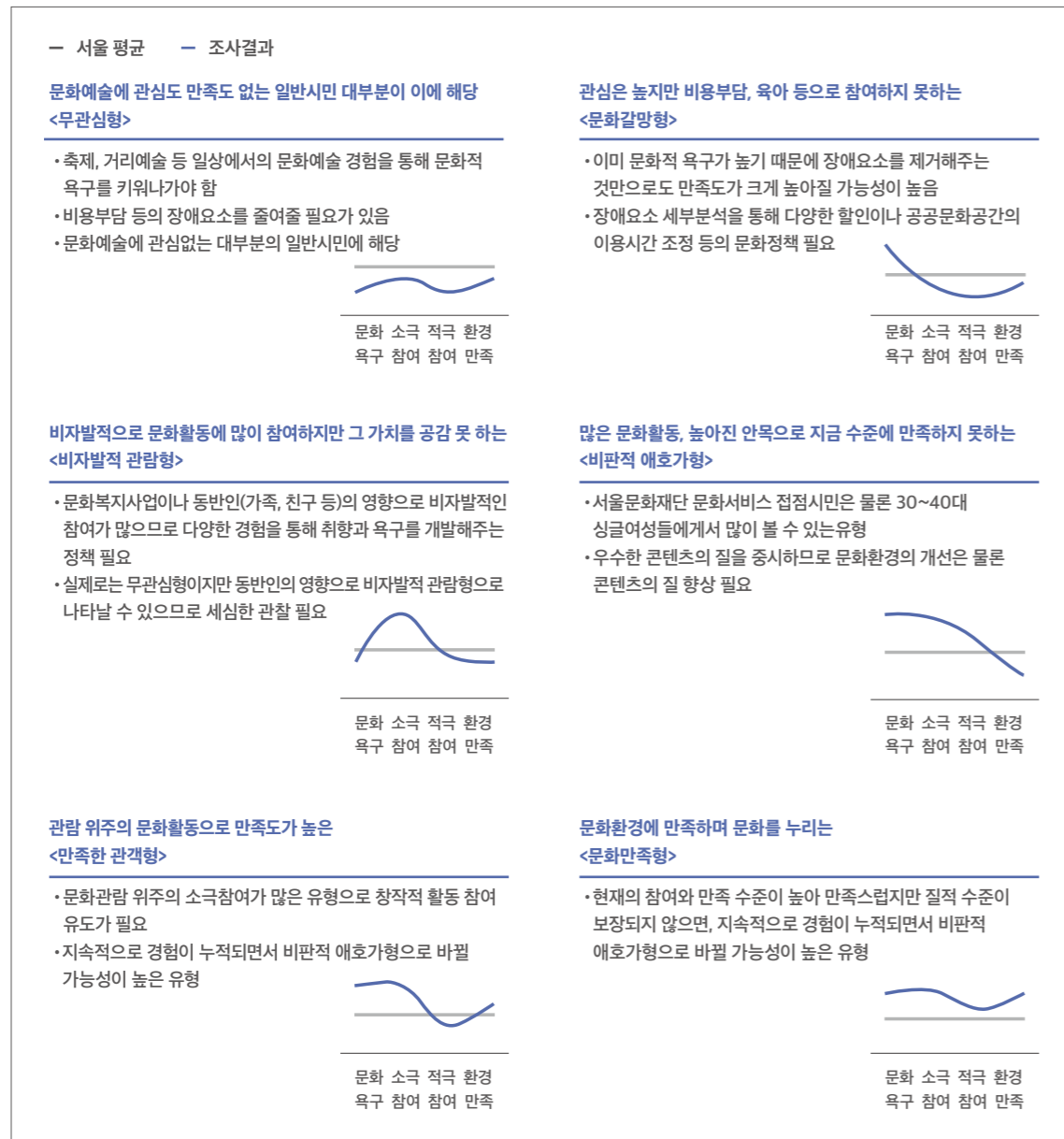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생애주기 또한 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목해야할 특성 그룹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 더불어 생애주기별 8개 유형을 유지하더라도 청년, 1인 가구, 고령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나 문화정책적으로 주목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 있음

(2)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유형분석 보완

■ 2015년에는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특성그룹이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대책 처방이 가능한 분석모델 도입을 시도하였음

- 문화적 욕구, 실질적 문화활동 참여,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Desire-Practice-Satisfaction) 등 3개 항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값 <서울서베이>와의 편차를 비교하고 6개 정책적 관심 그룹에 대한 진단-처방 모델을 제시하였음

<그림16.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에 따른 분석 유형 및 제언 방향>



■ 이는 문화적 욕구가 다양한 제약과 대안의 조정을 통해 실제 참여로 이어지고, 참여 경험의 만족도가 다시 문화적 욕구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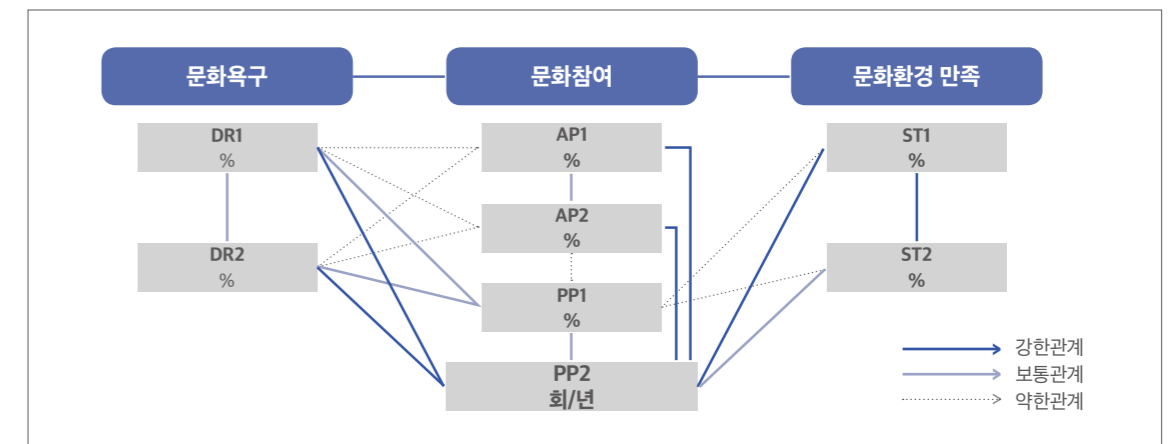
- 이러한 가설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제약사항을 제거하거나 동기를 만들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문화정책적 진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욕구-참여-만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및 문항배치를 통해 분석방향이 제시되었음

<표14. 2015년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에 따른 대표 지표 도출>

구분	코드	세부 내용	
욕구(Desire)	DR1	A3. 희망 여가활동(②문화예술 관람, ③창작적 취미활동, 1+2 통합, %)	
	DR2	D6.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의 비중(긍정응답, %)	
참여(P)	적극(Active)	AP1	A1. 주말/휴일 여가활동(③창작적 취미활동 선택 빈도) 1+2+3 통합, %
		AP2	C1.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 경험 %
	관람(Passive)	PP1	A1. 주말 또는 여가활동(②문화예술 관람 선택 빈도) 1+2+3 통합, %
		PP2	B2. 문화활동 총 횟수(개별 활동 합계)
		PP3	B2. 문화활동 총 비용(개별 활동 합계)
만족(Satisfaction)	ST1	E2. 서울시 전반 문화환경 만족도(긍정응답, %)	
	ST2	E2.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만족도(긍정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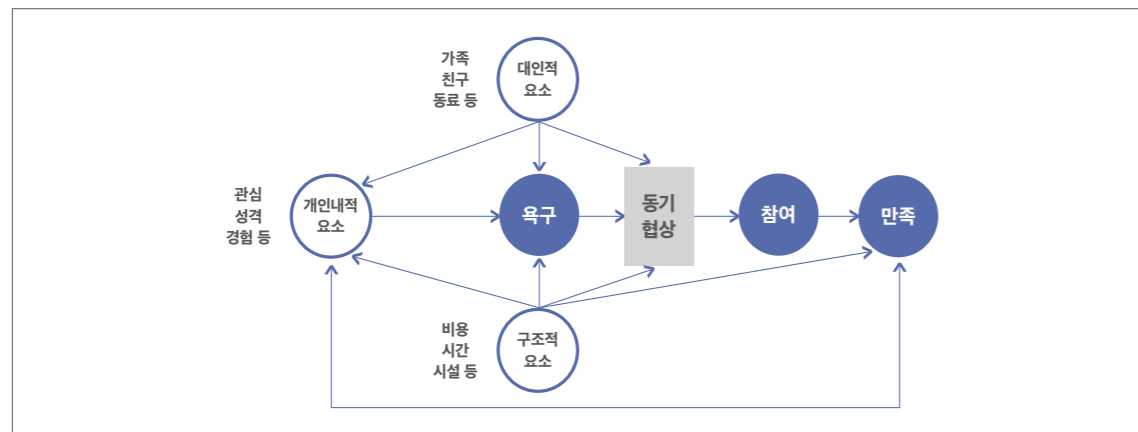
- 또한 주요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욕구와 소극적인 문화 참여(관람), 문화환경 만족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교육, 창작적 취미활동 등의 적극적 문화 참여와의 연관성까지 종합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17. 교차분석을 통한 연관성 분석 종합 결과>



-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에 따라 문화정책 상 관심을 가져야 할 그룹을 검토하였음
 - 각 지표별 지수화보다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음
 - 특히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욕구와 참여의 형태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적극적 참여의 형태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문화적 욕구-참여-문화환경 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을 구축하고 유형화하여 정책적 진단을 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모델 개발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 검토가 미흡한 편임에 따라 2016년에는 조사문항 변경 등을 고려한 상관관계 재분석 등 새로운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단계임
 - 생애주기별 분석으로는 알기 힘든 같은 세대 내 문화 참여 실태 차이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욕구-참여-만족 지표를 통해 문화정책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그룹 및 유형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는 경험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통계적으로는 뒷받침할만한 근거 제시가 되어있지 않음
 - 특히 '만족'지표의 경우 기준이 되는 <서울서베이>와의 비교를 위해 문화환경 만족도를 적용하였는데, 문화참여를 통한 총체적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개선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여가제한 관련 이론을 참고함
 - 여가제한은 Kay와 Jackson(1991)이 "개인의 여가선호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가에 대한 참여나 여가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시 말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활동에 참여하고는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불만족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음⁷⁾
 - 여가제한 및 여가만족 관련한 선행연구 모형⁸⁾들을 참조하여 기 개발한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에 적용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모형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임

<그림18. 여가제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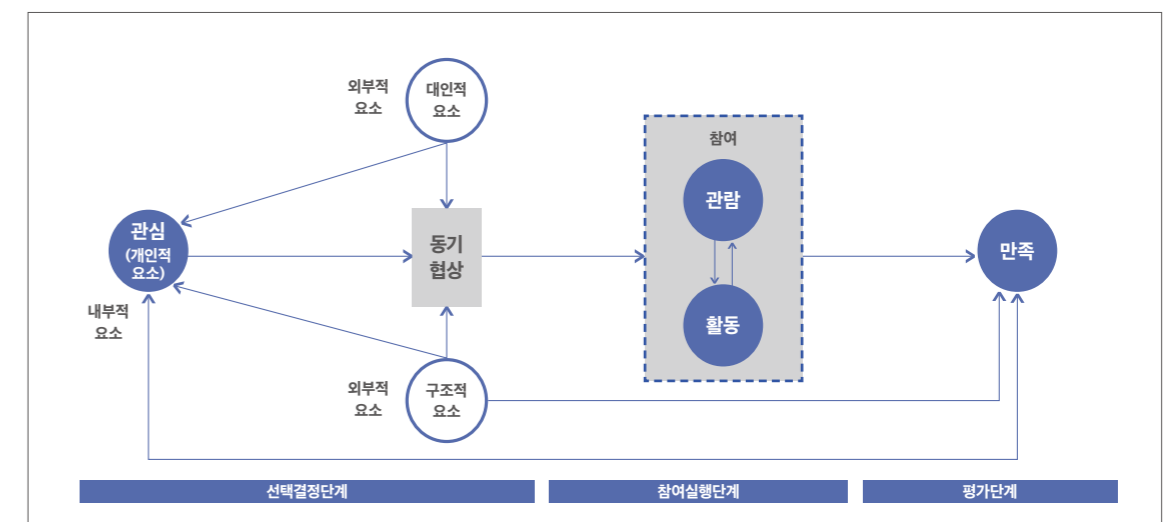
7) 이유리, 박미석 (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한,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8) 이유리, 박미석 (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한,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강은주, 김연희, 이희선 (2015). 여성고령자의 여가제한과 협상전략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87-116

-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esire-Practice-Satisfaction) 모델을 실제 적용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항목/영역간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의 항목구성을 개선함
 - 2016년 조사의 설계에 따라 일반시민 조사 도입을 통해 각 단계별 대표지표 설정 시 모든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검토 가능하게 되어 이전 <서울서베이>와의 비교를 위해 표기했던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함
- 상관분석을 통해 설정된 8개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8개 항목을 요인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지정하고 분석하였을 때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항목의 타당성이 검증됨
 - 더불어 선행연구 및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모형을 발전 제구성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I-V-E-S)에 따른 문화향유 실태조사 모형' 개선
 - 기존 모델에서의 '욕구'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내부적 요소를 의미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욕구, 관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관심'으로 명칭을 개선함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참여의 형태를 소극적인 '관람'과 '적극'적인 참여(교육, 동호회 등)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관람'과 '활동'으로 명칭을 개선함

<표15. 2016년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에 따른 대표지표 도출>

구분	16년 지표항목	구분명칭 변경
욕구(Desire)	A6. 문화관심집단도	관심(Interest)
	D4. 문화중요도	
참여(Practice)	B1. 총비용(환산)	관람(Viewing)
	B1. 총횟수(환산)	
	C1. 문화활동	활동(Engagement)
만족(Satisfaction)	D1. 문화생활만족도	만족(Satisfaction)
	D2. 서울환경만족도	
	D3. 지역환경만족도	

<그림19.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I-V-E-S)에 따른 문화향유 실태조사 모형>



■ 군집분석을 통해 6개의 군집계층 도출로 새로운 유형화 시도

- 8개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4~8개 군집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 군집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6개 군집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표16. 6개 군집으로 분석 결과>

투입변수	군집					
	1	2	3	4	5	6
관심 A6. 문화관심집단도	91.74	84.90	93.49	57.18	82.74	82.29
관심 D4. 문화중요도	90.39	83.17	89.11	52.97	79.42	79.08
관람 B1. 총횟수(환산)	37.58	21.68	66.59	12.33	16.12	22.73
관람 B1. 총비용(환산)	19.70	13.30	65.04	8.31	11.01	12.34
활동 C1. 문화활동	79.38	14.30	30.31	5.09	5.69	63.18
만족 D1. 문화생활만족도	75.30	62.84	66.88	44.27	34.48	50.78
만족 D2. 서울환경만족도	78.02	74.96	66.10	52.59	46.25	52.50
만족 D3. 지역환경만족도	69.15	65.43	47.90	48.76	34.53	41.11

- 6개 군집별로 조사결과 및 응답자 특성을 심층분석하고 주요 특성에 따라 명칭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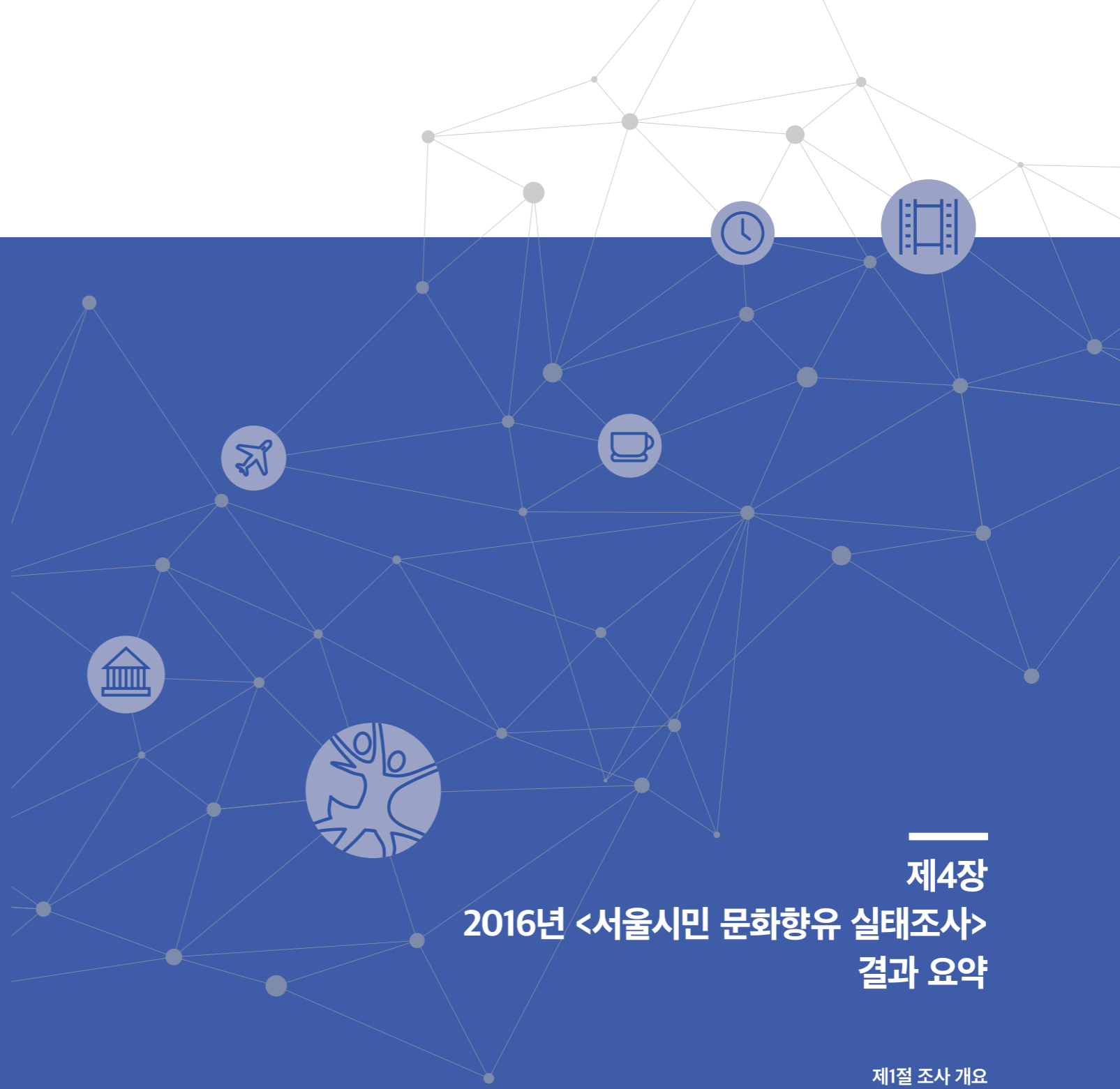
<표17. 6개 군집별 주요특성과 명칭부여>

군집	특성	명칭부여
1	참여활동이 높고, 만족도도 높음	활동만족형
2	활동은 하지만 관람은 중간수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고르게 높음	현실만족형
3	전반적으로 가장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군집	만족관객형
4	전반적으로 관심도 낮고, 활동수준도 낮은 군집	무관심형
5	관심도와 중요도는 높지만, 활동수준과 만족도는 낮음	문화장벽형
6	1과 비슷하게 참여활동은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불만참여형

- 기존의 문화적 욕구-참여-만족(D-P-S) 모델은 주요 지표항목의 결과 값이 평균에 비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2016년에는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I-V-E-S)에 따른 문화향유 실태조사 모형' 개선 및 군집분석을 통해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20.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I-V-E-S)에 따른 문화향유 실태조사 모형 도출 과정>





제4장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제1절 조사 개요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해당 조사의 세부내용은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표18.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관심집단(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일반시민
	서울시통합회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조사대상	-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 미술관 홈페이지 접속자 - 미술관 뉴스레터 수신자	- 재단 홈페이지 접속자 - 재단 뉴스레터 수신자	서울거주 온라인 조사 패널
유효표본	5,706명			2,000명
	3,846명	959명	90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 50대, 60세 이상 50% 면접조사 병행
표본추출	서울시 홈페이지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시립미술관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서울 거주자 중 성/연령/권역별 할당추출
표본오차	±1.3%p			±2.2%p
조사기간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9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조사기관	서울문화재단 (조사 및 분석 대행: (주)월드리서치)			

(2) 조사항목

<표19.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항목>

항목	세부 항목
문화/여가활동 관심도 및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성 주로 하는 여가활동 및 여가활동 동반자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관람 경험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 관람(총 횟수/본인 지불 횟수/총 비용) 관람 만족도 향후 관람 횟수/지불비용 증감 의향 문화예술 관람(참석) 동반자 문화예술 행사 주 관람 지역 문화예술 활동 애로사항
문화예술 활동 경험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참여 경험/ 참여 형태 문화예술 참여 만족도 향후 관람 횟수 및 지불비용 증감 의향 1) 문화예술 교육 수강 2) 문화예술 취미활동 3)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 교육 장소 문화예술 교육 애로사항 문화예술 교육 비참여 이유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애로사항 문화예술 동호회 비참여 이유 문화예술 취미활동 애로사항 문화예술 취미활동 미참여 이유 자원봉사활동 비참여 이유 문화예술 주 활동 지역
문화예술 만족도 및 삶의 행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 만족도 서울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자치구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문화예술 중요도 삶의 만족도(행복도)

(3) 응답자 특성

<표20.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일반시민 (온라인 조사 패널)		문화관심집단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사례수		사례수	%	
전체	(2,000)	100.0	(5,706)	100.0	
성별	남성	(977)	48.9	(2,134)	37.4
	여성	(1,023)	51.2	(3,572)	62.6
연령	29세 이하	(455)	22.8	(1,195)	20.9
	30대	(373)	18.7	(1,722)	30.2
	40대	(383)	19.2	(1,630)	28.6
	50대	(359)	18.0	(717)	12.6
	60세 이상	(430)	21.5	(442)	7.7
권역	도심권	(104)	5.2	(487)	8.5
	동북권	(632)	31.6	(1,723)	30.2
	서북권	(238)	11.9	(895)	15.7
	서남권	(607)	30.4	(1,595)	28.0
서울 거주기간	동남권	(419)	21.0	(1,006)	17.6
	5년 미만	(95)	4.8	(430)	7.5
	10년 미만	(118)	5.9	(512)	9.0
	20년 미만	(337)	16.8	(953)	16.7
	30년 미만	(380)	19.0	(1,163)	20.4
결혼 여부	40년 미만	(436)	21.8	(1,144)	20.0
	40년 이상	(633)	31.7	(1,504)	26.4
	기혼	(1,281)	64.1	(3,210)	56.3
자녀 유무	미혼	(719)	35.9	(2,496)	43.7
	자녀있음	(1,047)	52.3	(2,606)	45.7
학력	자녀없음	(953)	47.7	(3,100)	54.3
	고등학교 이하	(663)	33.2	(382)	6.7
	최종학력 전문대	(194)	9.7	(507)	8.9
	최종학력 대학교	(949)	47.5	(3,385)	59.3
직업	대학원 이상	(193)	9.7	(1,432)	25.1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24)	1.2	(468)	8.2
	전문/관리직	(268)	13.4	(1,406)	24.6
	사무직	(648)	32.4	(1,958)	34.3
	판매/서비스직	(256)	12.8	(243)	4.3
	학생	(241)	12.1	(489)	8.6
	주부	(294)	14.7	(585)	10.3
	무직	(96)	4.8	(362)	6.3
기타	(173)	8.6	(195)	3.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24)	11.2	(841)	14.7
	300만원 미만	(280)	14.0	(937)	16.4
	400만원 미만	(343)	17.1	(1,032)	18.1
	500만원 미만	(365)	18.3	(895)	15.7
	600만원 미만	(298)	14.9	(764)	13.4
600만원 이상	(490)	24.5	(1,237)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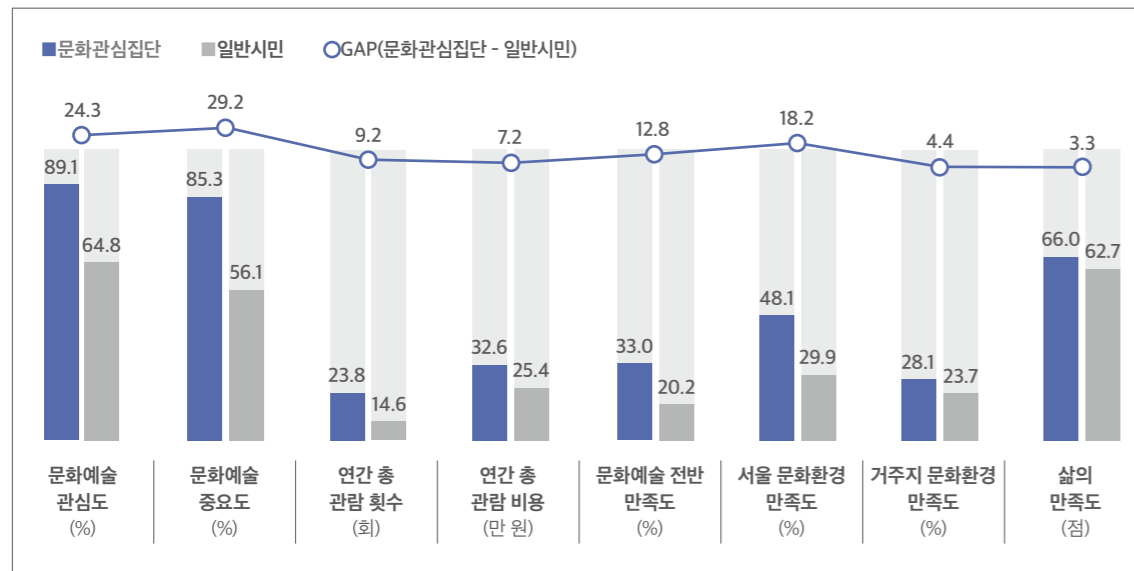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세부 조사결과는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별책 참조

(1) 주요 조사결과

■ 주요항목 조사결과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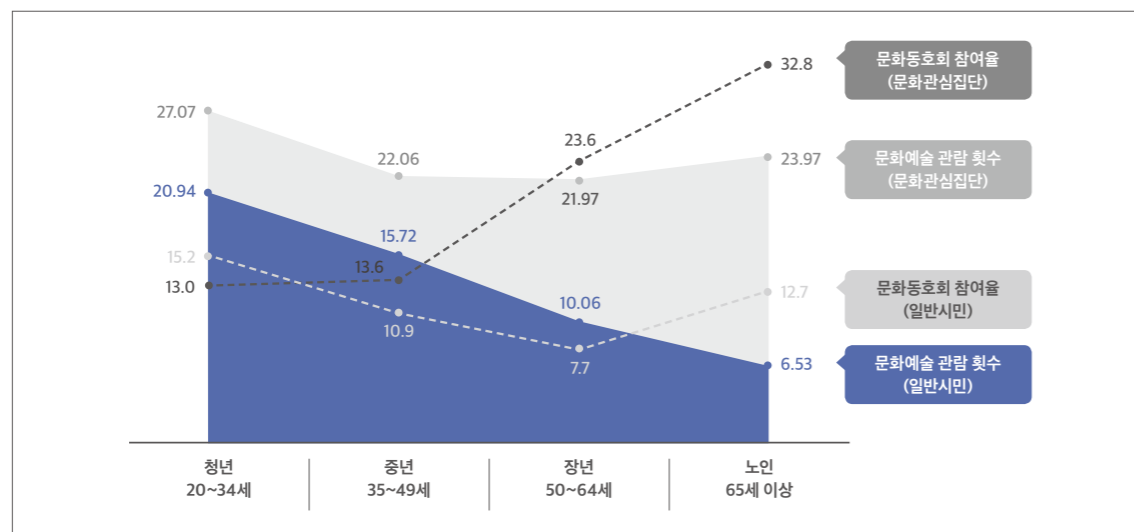
<그림21. 2016년 주요항목 조사결과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비교)>



※ 일반시민과 문화관심 집단의 차이에 대한 오차는 ±1.3%p로, 신뢰수준 95%하에서 2.6%p 내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비교)

<그림22.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회)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



(2)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에 따른 유형화 분석

■ 유형별 주요특성 및 제안처방

<표21.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 요인에 의한 유형>

구분	주요특성 및 제안처방
무관심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하여 월 0-1회 정도 관람은 하지만 만족도는 낮음 - 관람활동을 하더라도 동반인의 영향 등 비자발적인 관람일 가능성이 높음 - 주로 여가시간엔 TV를 보는 편이며, 운동, 여행 등의 활동을 선호하는 편임 - 50-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거주지 주변에서 주로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하는 비율이 높음 제안 처방 - 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문화적 관심과 취향 발굴 방안 마련 - 축제, 거리예술 등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문화예술 경험은 물론 스포츠, 캠핑과 문화예술의 접목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
문화장벽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비용이나 시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 관람은 월 1회 정도 참여함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만큼 참여하지 못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그룹 - 전 연령대별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히 30-40대 기혼남녀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임 제안 처방 -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요 장애를 제거해주는 것으로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장애요소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시민의 참여 확대 -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확대 혹은 동일시간대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여건(생활권 인근, 다양한 시간대 등)에 맞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불만참여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 월 1-2회 정도 꾸준히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하고 문화예술 교육, 취미, 동호회 활동에도 참여하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그룹 제안 처방 -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나 교육을 위해 문화활동에 참여하나, 비용이나 시설, 교통, 절차 등에 만족도가 낮은 편이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함 - 특히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므로 할인정책이 필요하며, 문화지출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
현실만족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 주로 월 2회 내외로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함 -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만족하는 그룹 - 비용, 시간,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장애로 꼽음 - 전 연령대별로 고르게 비율이 높음 제안 처방 - 현재 문화활동 참여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개선해야 함
만족관객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 주로 여가시간에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작품을 월 5-6회 정도로 꾸준히 관람함 - 문화예술 관람 지출이 많아 비용 부담이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편임 - 30-40대 미혼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임 제안 처방 - 예술교육, 창작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어린이, 주부, 노인에게 집중된 지역문화프로그램의 향유계층을 다양화
활동만족형	주요 특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 월 3회 정도 문화예술 관람도 하면서 문화예술 교육, 취미,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편임 -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임 제안 처방 - 공공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노력 - 문화동호회 모임을 위한 공적 공간 및 운영 지원 확대

*8개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시행

■ 유형별 분포 현황

<표22.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유형별 분포>

구분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 요인에 의한 유형(%)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	현실만족형	만족관객형	활동만족형	
일반시민 (온라인 조사 패널)	35.7	24.1	9.9	21.2	4.7	4.3	
성별	남성	40.6	23.4	9.0	17.6	5.2	4.2
	여성	31.0	24.8	10.9	24.7	4.3	4.3
연령별	20대	23.3	26.8	11.9	26.0	7.0	5.1
	30대	33.0	26.7	11.3	15.9	8.2	4.8
	40대	36.8	24.0	10.8	19.2	5.4	3.9
	50대	45.9	26.9	3.4	18.5	2.0	3.4
	만 60세 이상	43.3	17.8	9.6	24.4	1.2	3.6
	생애 주기별	20대 열광족	23.3	26.8	11.9	26.0	7.0
30대 싱글녀		23.3	31.2	9.5	18.0	15.5	2.6
30대 육아맘		34.9	22.9	13.3	17.7	2.9	8.2
40대 프렌디		35.5	23.7	11.3	19.2	7.1	3.3
40대 컬처맘		37.2	22.3	11.9	21.2	3.4	4.0
40대 싱글녀		23.4	30.9	12.4	22.5	8.6	2.2
50대 낭만족		45.9	26.9	3.4	18.5	2.0	3.4
60대 액티브		43.3	17.8	9.6	24.4	1.2	3.6
문화관심집단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12.6	25.3	16.5	25.3	7.7	12.7	
성별	남성	17.3	29.8	14.7	24.3	5.6	8.4
	여성	9.8	22.7	17.5	25.9	8.9	15.2
연령별	20대	7.6	23.3	16.9	27.0	11.3	14.0
	30대	11.9	27.0	14.7	27.2	9.6	9.6
	40대	16.0	27.9	14.3	24.7	5.9	11.2
	50대	14.4	24.0	19.7	21.9	4.1	15.9
	만 60세 이상	13.1	16.6	24.9	19.9	3.0	22.4
생애 주기별	20대 열광족	7.6	23.3	16.9	27.0	11.3	14.0
	30대 싱글녀	6.6	22.6	15.3	27.7	14.4	13.3
	30대 육아맘	14.8	27.5	13.2	27.5	6.5	10.6
	40대 프렌디	20.7	35.5	9.6	23.5	3.5	7.2
	40대 컬처맘	13.9	23.0	16.3	27.7	4.5	14.4
	40대 싱글녀	10.9	21.8	17.3	23.8	12.9	13.4
	50대 낭만족	14.4	24.0	19.7	21.9	4.1	15.9
	60대 액티브	13.1	16.6	24.9	19.9	3.0	22.4

■ 유형별 주요 결과(주 여가활동, 여가활동 동반, 문화예술 관람 장애요소, 삶의 만족)

<표23.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유형별 주요 결과>

구분		주요하는 여가활동(1순위/%)				여가활동 동반(%)				문화예술 관람 장애요소(1순위/%)				삶의 만족 (점)
		TV 시청	여행,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운동	가족	혼자	친구 (연인)	동호회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정보 부족	관심 프로그램 부족	
일반시민	무관심형	44.9	9.4	4.2	11.9	42.6	31.6	20.8	3.3	30.0	28.1	14.6	12.8	61.7
	문화장벽형	43.0	14.8	8.8	9.2	41.1	30.4	24.3	3.9	36.9	29.9	18.2	5.8	58.5
	불만참여형	37.1	15.9	12.1	7.4	33.6	32.6	27.3	3.4	43.1	22.6	7.6	7.7	60.7
	현실만족형	40.0	12.5	10.0	8.9	39.6	25.8	29.8	4.8	33.3	21.0	15.8	11.2	69.0
	만족관객형	15.3	17.5	36.6	19.8	36.3	27.6	30.5	5.6	42.9	24.9	11.4	3.3	62.4
	활동만족형	36.2	12.8	16.1	7.6	45.1	21.5	31.8	0.4	28.7	21.2	10.0	14.4	75.3
문화 관심집단	무관심형	43.2	12.4	4.7	11.4	46.1	34.6	13.6	4.5	40.3	24.1	11.4	12.4	62.6
	문화장벽형	40.0	13.0	8.0	9.1	41.9	36.1	17.7	3.7	39.6	31.4	10.8	7.3	58.6
	불만참여형	27.3	16.0	12.1	8.6	37.0	35.1	20.5	6.6	43.4	24.5	12.8	7.7	65.7
	현실만족형	30.2	17.6	15.1	9.1	43.6	30.1	21.4	4.1	39.0	28.5	12.7	7.4	71.2
	만족관객형	15.1	11.0	48.8	4.8	22.5	44.7	30.1	2.4	50.5	20.1	11.2	7.2	69.1
	활동만족형	21.5	12.7	22.3	7.5	32.6	34.0	24.1	8.5	40.8	27.2	11.0	6.9	74.8

제3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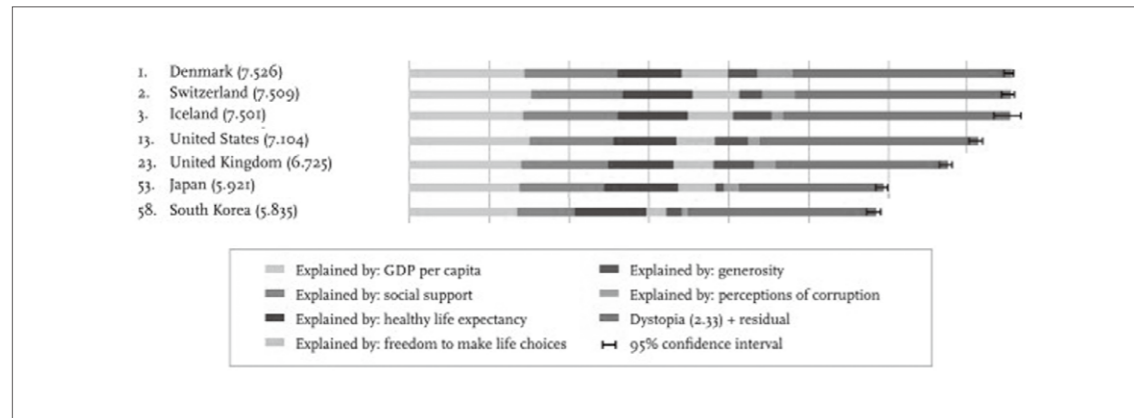
(1) 삶의 행복 위한 시민 문화참여 확대 정책 강화 필요

■ 서울시민들은 삶의 행복에 있어 물질적 요인 중요

- UN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5.835로 전 세계 58위로, OECD 국가 평균(6.62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한국인은 행복의 조건으로 GDP 등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연구원에서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진행한 연구⁹⁾의 결과에서도 '풍족한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동시에 물질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없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어도 서울시민의 행복 메커니즘에서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음

<그림23. 국가별 2016년 행복지수 순위와 구성요인>

(출처: 2016 World Happiness Report (UN))



■ 문화와 삶의 행복과의 연관성 입증. 시민들의 문화 참여 확대 위한 문화정책 필요

-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높고 더 행복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편이었음
-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소들(주관적 계층의식, 계층 이동 가능성, 주관적 생활영역별 만족도 등)이 행복점수 상승에 더 영향¹⁰⁾이 있다거나, 녹지 및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¹¹⁾진다는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문화와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본 조사는 문화관심집단과 일반시민집단을 비교하여 문화활동과 행복지수 간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캠페인 전개 및 문화복지 확대, 문화중산층 양성 등의 다양한 문화정책이 필요

9) 변미리(2014).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P.95

10) 변미리(2014).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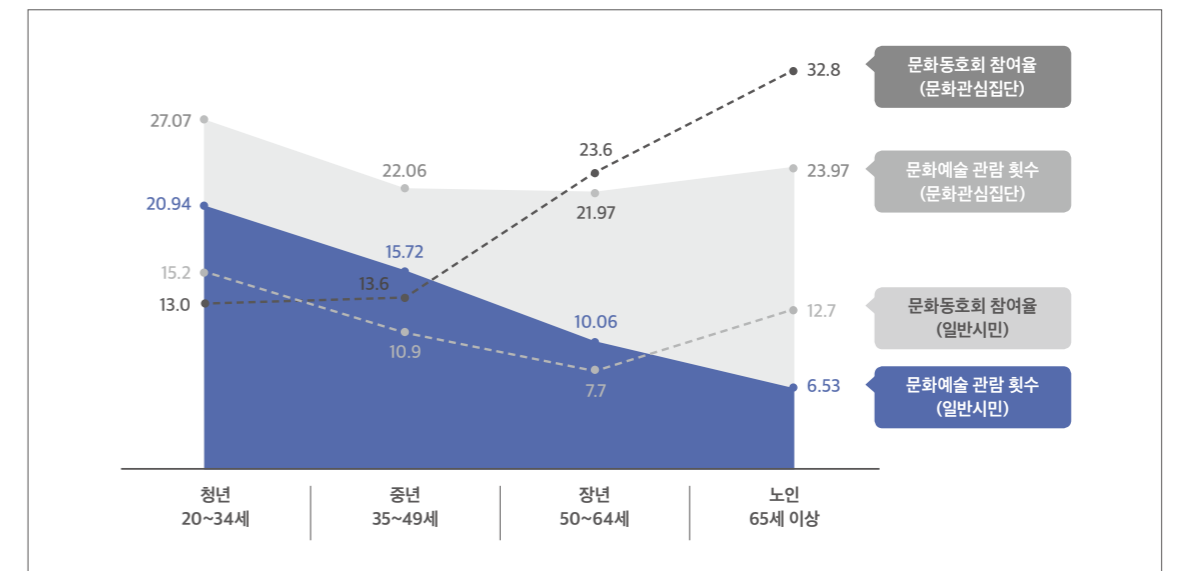
11) 엄영호, 엄광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109호). 2017년 6월. 145~170쪽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참여 행태 달라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필요

■ 청년은 관람 위주로 문화예술 즐기지만, 나이 많을수록 관람 즐기고 문화동호회 활동 참여는 증가

- 일반시민 중 청년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연 평균 20.94회로 가장 많은 관람을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 65세 이상 노인은 6.53회(문화관심집단 23.97회)로 나타났음
-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일반시민에서는 40대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50세이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청년은 10% 초반의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32.8%로 나타남. 더불어 주목할 점은 문화관심집단의 문화동호회 참여율이 반등하는 시기가 일반시민에 비해 더 빠르다는 점임
- 젊은 시절의 일과 가정에서 쫓기 듯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다 주체적 삶을 지향하는 중장년 및 노인들이 증가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나이 많을수록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 간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에 무관심한 노인에 대한 심층분석 및 문화예술 참여를 유도할 만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의료기술의 발전과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서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되는 가운데, 이들은 문화활동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의 관계망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24.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회)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



<주위1> 위 그래프는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 집단 간 비교참고를 위해 활용하기 바라며,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단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음

<주위2> 일반시민과 문화관심 집단의 차이에 대한 오차는 ±1.3%p로, 신뢰수준 95%하에서 2.6%p 내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청년들의 문화동호회 참여율 비교시 일반시민이 문화관심집단보다 더 많이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전반적으로 영화 관람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문화관심집단은 타 예술장르도 관람 비율이 높아

- 장르별로 살펴보면 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모두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관(전시), 연극공연의 관람 횟수에서 문화관심집단의 관람 횟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그 외 장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조사결과 특징 중 하나는 문화관심집단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미술관·박물관 관람 횟수가 타 장르보다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무료입장이 가능하므로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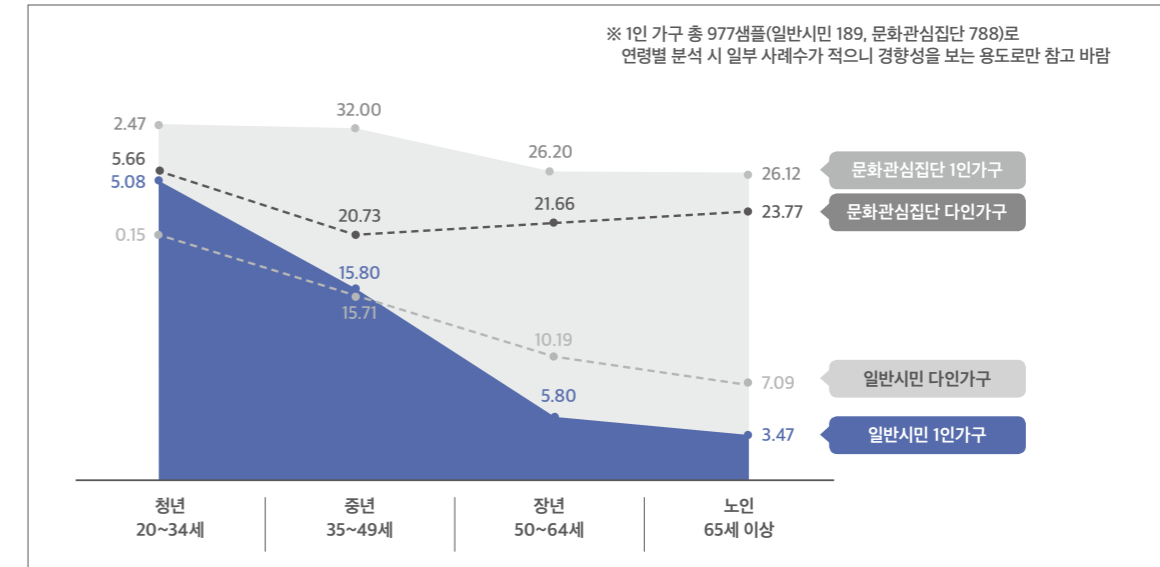
<표24.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회)>

구분	미술관 (전시)	박물관	음악 공연	무용 공연	전통 공연	연극 공연	문학 행사	영화	대중 공연	축제	
문화 관심 집단	전체	4.8	3.2	2.9	2.0	2.1	4.4	2.1	8.6	2.2	2.9
	20~34세	5.4	3.0	2.7	2.1	2.0	5.6	2.0	10.8	2.4	2.9
	35~49세	4.3	3.3	2.8	2.1	2.0	4.2	2.0	7.8	2.1	2.9
	50~64세	5.0	3.4	3.2	1.8	2.4	2.8	2.5	6.8	2.1	3.0
	65세 이상	5.2	4.8	3.8	1.9	2.9	2.3	2.7	7.0	2.0	3.0
일반 시민	전체	2.4	2.0	2.2	1.9	1.8	2.6	2.2	7.8	2.3	2.2
	20~34세	2.6	2.1	2.2	1.9	2.2	3.2	2.4	11.0	3.0	2.4
	35~49세	2.3	2.1	1.9	1.9	1.6	2.5	1.9	8.4	2.0	2.1
	50~64세	2.5	1.7	2.6	2.1	1.6	2.1	2.8	5.1	1.7	2.0
	65세 이상	2.1	2.2	1.6	1.7	1.6	1.7	1.6	3.4	1.5	2.3

■ 1인 가구의 문화활동이 다인 가구보다 더 활발한 반면, 고령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저조

- 서울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는 등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문화생활도 주목받고 있음
- 일반시민(온라인 조사패널)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25.08회로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보다 4.93회 더 많이 문화예술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청년 1인 가구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다시 한 번 증명됨
- 한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감소폭이 더욱 커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인 1인 가구가 문화활동에 제약이 큰 것으로 보임. 이는 가족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다인 가구와는 달리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 동반자의 부재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문화관심집단은 문화예술 관람 감소폭이 완만한 반면 일반시민 1인 가구는 감소폭이 큼
이는 문화관심집단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있고 재정적 부담을 무료나 저가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해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시민 1인 가구는 문화소비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중장년 1인가구는 노후에 대한 재정적 걱정, 문화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관람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문화생활 위축될 수밖에 없어 문화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그림25.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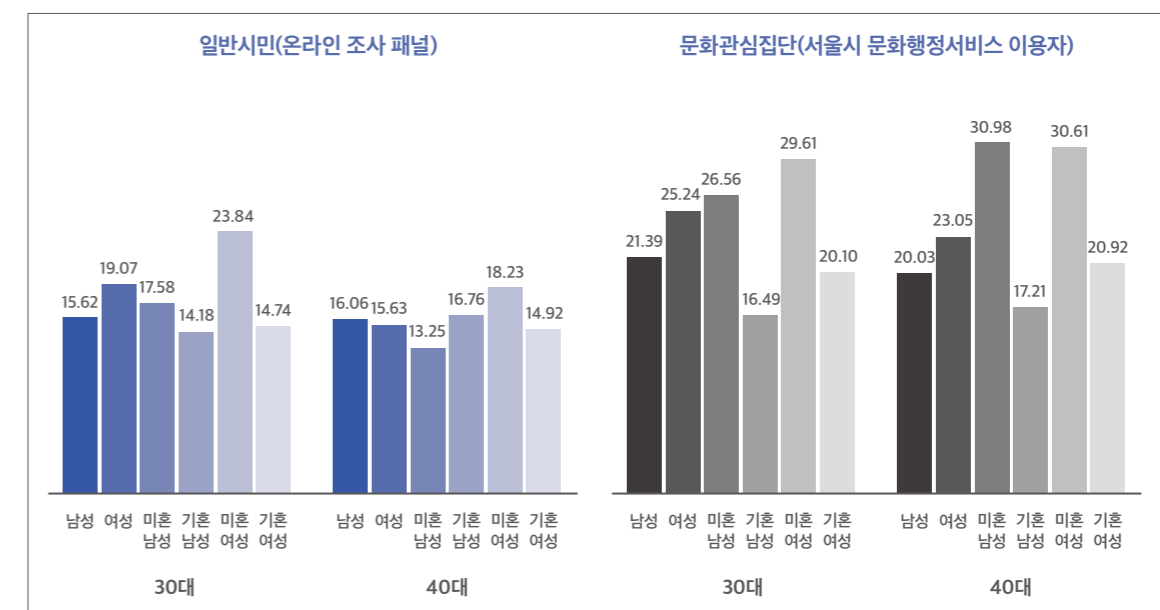


<주위1> 문화관심집단 표본오차는 ±1.3%p로, 신뢰수준 95% 이하에서 2.6%p 내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문화관심집단의 다인가구와 1인 가구 비교 시 문화관심집단의 노인 1인가구는 노인 다인가구보다 더 많이 관람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주위2> 일반시민 표본오차는 ±2.2%p로, 신뢰수준 95% 이하에서 4.4%p 내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일반시민의 다인가구와 1인 가구 비교 시 일반시민의 노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더 적게 관람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결혼, 육아 등 생애 중요사건에 의해 문화향유 차이 생겨

- 30~40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성별 및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보다 미혼이 더 많이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평균 관람 횟수 차이가 크게 났으며 이는 가사나 육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26. 30~40대 성별/결혼유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회)>



(3) 문화에 대한 관심유도 및 불만족 요인 제거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예술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 만족도에 따른 유형화를 기반으로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 필요

- 더욱 다양해진 삶의 형태와 여가활동에 따라 연령, 결혼유무 등의 생애주기별 유형만으로는 비슷한 삶의 시기에 있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분석이 되기 어려움
- 이에 문화에 대한 관심 및 관람, 활동, 만족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 '현실만족형', '만족관객형', '활동만족형' 등 6개 유형화를 통한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제안하였음
- 하지만 심층적 분석과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더 실효성있는 처방이 제안되는 것이 필요함

■ 유형별 관심도 및 참여유형 달라 각기 다른 처방 필요

- '무관심형'은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 간 분포 차이가 가장 큰 유형으로, 일반시민 중 35.7%가 무관심형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속하며, 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고 문화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 알려진 세대인 20대에서도 23.3%의 시민이 '무관심형'임. 이들은 문화활동보다는 TV시청, 운동, 여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여가생활로도 문화활동은 후순위로 나타나 이들의 문화적 관심과 취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문화장벽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만족도가 낮은 유형으로 전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 특히 30-40대 기혼자에서 '문화장벽형'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사회활동, 가사, 육아 등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불만참여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월 1-2회 정도의 관람과 참여 활동을 하지만, 비용 부담과 시설의 불편도, 참여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낮은 유형
-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하지만 비교적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실만족형'은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에서 21-25%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월 5-6회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을 하며 비교적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만족관객형'은 30-40대 미혼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이들은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즐기는 경향
- '활동만족형'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관람과 예술교육, 창작활동, 문화동호회 등에 참여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고르게 높은 유형이나 가장 적은 분포로 나타남



■ 공공 문화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필요

-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은 6개 유형 중 불만족층에 해당하며 일반시민의 약 70%, 문화관심집단에서도 약 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
- 이러한 결과는 공공문화행정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시민들의 주요 불만족한 이유가 경제적·시간적 요인으로 노동시간, 경제 등 여러 사회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면 공공 문화행정서비스로 인해 문화불만족층의 약 15%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문화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불만족 요소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프로그램 등의 양적 확대를 통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민
사건과
자살



제5장
결론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방안
제2절 서울시 문화통계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과제 제언

제1절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방안

(1) 2016년 개선 적용 및 평가

■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은 개선점이 반영되었음

- 본 조사목적에 맞게 일반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 파악을 위하여 온라인 조사패널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조사를 본격 도입하였음
- 일반시민과 특성 비교를 위하여 문화관심집단은 유지하되 대상을 서울문화재단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행정 서비스 이용자(서울시 통합회원 중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서울시립미술관 회원)로 확대하였음
- 조사응답자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설문 및 보기 문항을 일부 개선함
-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한 분석 시도를 통해 신뢰도를 높였음
- 군집계층 분류를 통해 문화적 관심과 관람, 활동, 만족에 따른 시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개선된 조사에 대한 평가

- 조사목적에 맞게 일반시민 2천명을 조사하고 문화관심집단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은 의미 있음. 그러나 일반시민 표본으로 2천명의 패널이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는데에는 충분하지만,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자치구별 문화향유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사규모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일반시민(온라인 조사패널)과 문화관심집단(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조사를 위해 대체집단을 활용하였으며, 그로 인한 실제 집단의 성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 일반시민의 대체집단인 온라인 조사패널은 비교적 온라인 정보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을 수 있음
 - 문화관심집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체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문화행정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를 일종의 대체집단으로 사용한 것이며, 따라서 '문화관심집단'과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는 그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문화관심집단에서도 무관심형이 존재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문화관심집단의 대상을 서울문화재단 회원에서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서울시 통합회원 중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서울시립미술관 회원)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며, 문화관심집단의 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의 다른 문화기관의 회원 등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조사방법 선택에 있어 최선은 아니지만 조사환경 및 여건을 고려할 때 차선택으로 비교적 적절하게 설계된 편임. 하지만 문화관심집단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품 등 설문 유도 및 홍보 강화 등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표25. 유사 조사결과 비교>

구분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 ¹²⁾	2016년 <서울서베이> ¹³⁾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일반시민	문화관심집단
서울할당 표본 수	1,263	45,609	2,000	5,706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서울 거주자 중 성/연령/권역별 할당추출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 50대, 60세 이상 50% 면접조사 병행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조사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	83.7% ¹⁴⁾	94.9%	93.7%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	6.9회	6.3회	15.3회

(2) 향후 추가 개선 방안 제안

■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응답비율 향상 및 협력 확대

-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모집단 규모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약 3~5% 정도의 응답률로 추정됨. 응답률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메일 발송 외 문자메시지 발송, 참여자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의 유인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비록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최소 20~30만 명 이상의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2%의 응답률을 높임으로 얻을 수 있는 표본 수의 증가는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는 서울시는 물론 문화예술관련 산하기관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의 다른 문화기관의 회원 참여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한편,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제 거주주소는 경기도권이지만 직장생활, 학업 등의 이유로 실제 생활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조사대상을 서울 거주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며 서울시의 문화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거주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고민해 볼만함

■ 일반시민 조사에서의 혼합조사방식에 대한 검토

- 일반시민 조사에서 50대 이상 표본에 대해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50:50 비율로 병행하였음
- 이는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자 편중이 우려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사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임
- 조사결과 온라인 조사 응답자가 고학력, 고소득,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주요조사항목에 있어서도 문화향유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도 혼합조사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적용연령은 50대 이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서울지역 표본 추출하여 재분석. 설문 항목이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함

13) 공개된 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분석. 설문 항목이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함

14) 문화예술 관람 횟수 + 문화예술축제 경험 포함하여 재분석

<표26.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50~60대 조사방법별 응답자 현황>

구분	온라인 조사		면접조사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94)	100.0	(394)	100.0	
성별	남성	(185)	46.9	(185)	46.9
	여성	(210)	53.1	(210)	53.1
연령	50대	(180)	45.5	(180)	45.5
	만 60세 이상	(215)	54.5	(215)	54.5
권역	도심권	(22)	5.6	(22)	5.6
	동북권	(129)	32.7	(129)	32.7
	서북권	(47)	11.9	(47)	11.9
	서남권	(118)	30.0	(118)	3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124)	31.4	(321)	81.3
	최종학력 전문대	(18)	4.7	(21)	5.3
	최종학력 대학교	(204)	51.8	(39)	9.9
	대학원 이상	(48)	12.2	(14)	3.5
직업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3)	0.7	(3)	0.7
	전문/관리직	(93)	23.5	(14)	3.6
	사무직	(76)	19.2	(20)	5.0
	판매/서비스직	(29)	7.4	(159)	40.3
	학생	(2)	0.6	(0)	0.0
	주부	(136)	34.4	(78)	19.7
	무직	(31)	7.8	(19)	4.8
	기타	(25)	6.2	(102)	25.9
월평균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52)	13.3	(64)	16.3
	300만 원 미만	(48)	12.1	(61)	15.5
	400만 원 미만	(56)	14.1	(70)	17.8
	500만 원 미만	(69)	17.6	(81)	20.7
	600만 원 미만	(60)	15.1	(60)	15.1
	600만 원 이상	(110)	27.8	(58)	14.6

<표27.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50~60대 조사방법별 주요응답>

구분	문화예술 관심도(점)	문화예술 중요도(점)	연간 총 관람 횟수(회)	연간 총 지불금액(원)	문화예술 전반적 만족도(점)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점)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점)	삶의 만족도(점)	
온라인 조사	50대	69.2	65.0	13.43	246,090	46.2	51.8	48.8	6.02
	60대 이상	65.8	63.3	13.32	182,138	48.6	53.5	51.4	6.53
면접 조사	50대	55.8	56.6	4.90	22,868	47.2	55.5	53.9	6.69
	60대 이상	58.0	57.5	4.60	22,728	47.9	55.3	56.6	6.80

■ 통계적 무응답 처리 방안의 적용을 위한 모집단의 정보 확보

- 본 조사는 비록 언급되지 않았으나 조사의 내용과 성격 상 MAC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가정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됨. 즉 조사에 응한 개인들과 응하지 않은 개인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임
- 하지만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이 없었고 기타 무응답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가중치 조정과 같은 무응답 처리 방안들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성·연령·지역 등 최소의 정보를 확보하여 사후층화 추정방안을 통해 무응답을 고려한 통계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력 시 최소정보 확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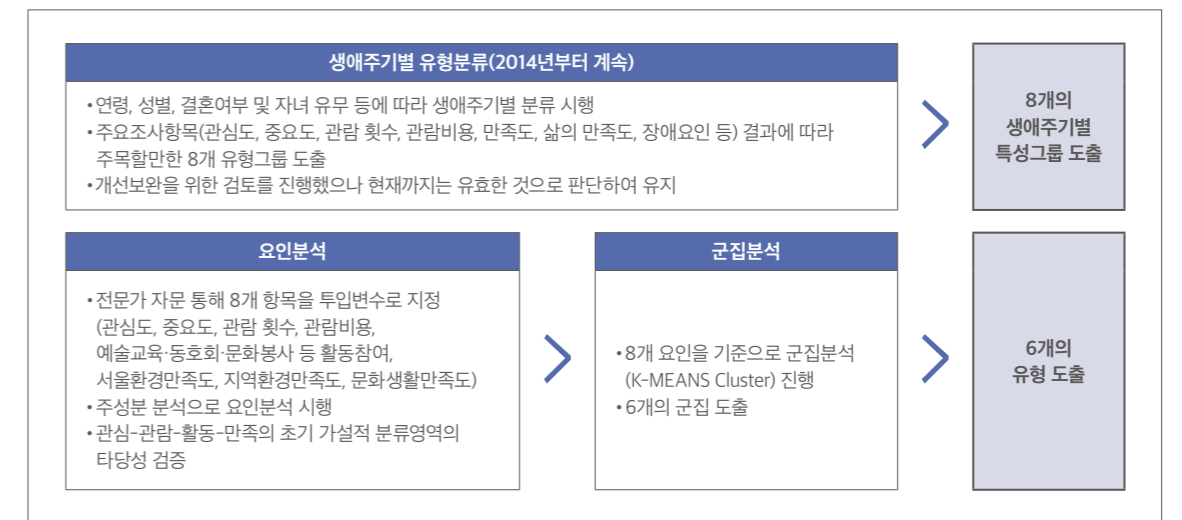
■ 일반시민의 지역별 문화향유 분석을 위해 조사규모 확대 및 격년조사로 개선

-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실태파악을 위해 2016년 '온라인 조사패널 2,000명을 조사하였음
- 이는 서울지역 문화예술 관련 조사로는 꽤 큰 규모의 조사로, 성별이나 연령별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이지만 25개 자치구별 분석을 하기에는 크지 않은 규모로 판단됨
- 특히 자치구별 문화정책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표본 수의 안배 또한 고려해야하나 현재 규모로는 자치구별 100명도 채 되지 않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사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
- 본 조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격년조사로 조사주기를 바꿈으로써 조사규모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예산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방안임

■ 통계적 분석 및 질적 연구 등의 보완을 통해 조사결과분석 지속적 개선

- 2016년 조사결과 분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으나 생애주기별 유형은 판별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재고하는 작업이 요구됨

<그림28.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분석도출 과정>



- 생애주기별 유형과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는 통계분석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나 궁극적으로 알고자하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이나 장애요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질적연구(인터뷰, FGI 등)도 병행¹⁵⁾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관객-참여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비교적 비관객·비참여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공연예술에 대한 태도와 수용저항을 기준으로 공연예술 비관객 집단을 ‘호의 집단’, ‘장벽 집단’, ‘무관심 집단’, ‘회의 집단’으로 세분화한 연구¹⁶⁾가 발표되는 등 참여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참여가 저조한 무관심층 등의 불만족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도 필요할 것임

■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자치구별 데이터 분석 및 협력 확대

- 광역과 기초 단위의 문화행정서비스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으나 자치구 문화정책 수혜자의 조사참여 유도가 쉽지않고 소요비용 증가, 각 자치구별 세부여건과 요구가 상이한 점 등은 조사효율성 면에서 재고할 지점임
- 하지만 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특성파악을 통해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므로 일반시민 조사규모 확대를 통해 자치구별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치구와의 공동분석 등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진단과 처방도 가능할 것임

■ ‘서울시민 문화지수’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심도있는 연구 필요

- ‘관심-관람-활동-만족’4개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얻었기에, 4개 영역의 값을 표준화하여 ‘서울시민 문화지수’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음
- 각 세부영역별로 각 100점 만점, 전체 4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영역(요인)별 지수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음

<표28. 서울시민 문화지수 산출 방법>

<p>* 영역(요인)별 지수산출 = ∑ 항목별 점수 / 항목수 EX) 관심지수 = (문화관심도 + 문화중요도) / 2 * 문화 지수 = (관심지수 + 관람지수 + 활동지수 + 만족지수) / 4</p>
--

구분	주요지표항목	세부 내용
관심지수	문화 관심도	평소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고, 100점 환산
	문화 중요도	문화예술이 본인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고, 100점 환산
관람지수	문화관람 총 횟수	문화예술 관람 경험자에 대해 질문한 분야별 연간 문화활동 총 횟수를 표준화하여, ±3σ(표준편차) 기준으로 100점 환산
	문화관람 총 비용	문화예술 관람 경험자에 대해 질문한 분야별 연간 문화활동 총 비용을 표준화하여, ±3σ(표준편차) 기준으로 100점 환산
활동지수	문화활동	문화예술 활동(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4점 척도 (3가지 모두 경험 없음/ 1개 경험/ 2개 경험/ 모두 경험)로 구분하고, 100점 환산
만족지수	문화생활 만족도	지난 1년동안 경험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100점 환산
	서울 문화환경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시설,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100점 환산
	지역 문화환경	자치구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시설,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100점 환산

15) 연구 진행 중 그룹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추진을 시도했으나 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17년도 후속연구로 추진 중임

16) 문화체육관광부(2016) 『예술관객 확대를 위한 비관객 세분화 전략』 중에서

- 문화지수 도출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숫자 하나로 명확히 보기에는 유용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로 인해 발표하지 못하고 보완을 위한 숙제로 남겨둠
 - 지수화를 염두에 둔 설문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항목별 척도가 달랐으며, 따라서 이를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환산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음
 - 조사항목 및 산출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관람지수 및 활동지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지수산출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자칫 오해될 소지가 컸으며 이를 당장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¹⁷⁾
 - 특히 관람지수의 경우 관람 횟수와 지불비용을 표준화하여 환산하였는데, 이는 표준편차를 활용한다는 것은 해당 값이 정규분포를 띤다는 가정 하에 환산 가능한 것이나 실제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친 비정규분포 항목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조사를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지수화를 위한 설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수화 산출시 관람 횟수-비용 및 활동 등과 같이 절대적 목표설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지수화는 측정이 어려운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별·세대별 등 다양한 계층에 따라 비교분석이 용이한 점 등의 장점이 있음. 하지만 복합적 요소가 많은 문화활동에 관해 단순화함으로써 왜곡이 심해질 수 있고, 지역별 서열화 등 단점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화가 과연 필요한지, 효과적인지 등에 관한 논의와 함께 후속 연구가 필요

■ 그 밖에 빅데이터와의 분석 연계 방안 등 중장기적 개선 노력

- 본 조사는 문화예술 향유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달리 시민들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왜곡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빅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또한 제한된 정보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므로 본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간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

17) 조사대상자 전체를 기준으로 지수화한 결과 평균 178.7점(욕구지수 77.5점, 관람지수 19.8점, 활동지수 24.8점, 만족지수 53.7점)이었음. 관람 지수의 경우 월 1~2회 관람자는 20점 내외였으며, 연간 50회 이상 관람자도 50~60점대로 나와 '100점 환산 시 평균이 50~6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음.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으나 해당 기준선을 정하기 어려웠음

제2절 서울시 문화통계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과제 제언

(1) 서울시 문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현황

- 서울의 문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공연, 시각예술, 영화 등 장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기타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표29. 서울시 문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통계자료 현황>

조사명	주관 기관	조사 주기	통계 구분	개요	비고		
서울 서베이	문화분야 가구조사	서울 연구원	격년	조사 통계	9개 지표 - 시민문화활동(설문조사)		
	문화분야 행정자료		매년	가공 통계	14개 지표 - 시민문화진흥, 문화기반환경, 문화시장환경(행정자료)		
	기타분야 연관문화		매년	가공 통계	5개 지표 - 도시발전과 주거(문화시설, 평생교육참여율), 관광(문화유산), 가치와 인식(삶의 만족도, 문화예술자원 봉사경험)		
서울 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 문화 재단	미정	기타 통계	가공 통계	50개 지표 -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정책(행정자료) - 문화참여(설문조사: <서울서베이> 및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활용)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 관심집단 일반시민 (온라인 조사패널)	서울 문화 재단	미정	기타 통계	조사 통계	30개 지표 - 여가와 문화예술, 문화관람, 문화참여, 만족도, 문화와 삶 영역(설문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격년	승인 통계	조사 통계	50여개 지표 - 예술행사관람실태, 문화예술관련 지출,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예술공간이용, 문화동호회 참여,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등(설문조사)	전체 10,000 샘플 중 서울은 1,200내외	

(2) 서울시 문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문제점

■ 문화정책 통계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 문화분야의 통계자료는 경제, 교육, 복지 등의 타 분야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정책성과 측정, 문화생태계 현황파악, 타 도시와의 비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 중심으로만 관리되는 경향이 있고, [문화생태계 현황파악용 지표]는 지표의 포괄성과 지표관리의 노력이 부족한 편임
- [대외 비교용 대표 지표]는 타 도시와 객관적인 현황 비교를 통한 미래 도시정책 아젠다 설정과 시정 핵심과제 추진 관리를 위해 위의 두 영역이 적절히 종합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편임
- 문화분야 통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서울문화지표조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의 조사주기, 지표체계 등 종합적 계획 미정

■ 조사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의미 도출형 분석은 부족하고, 문화정책 분야에서 조사결과 활용도 낮음

- [문화생태계 현황파악용 지표]를 통한 문화생태계의 시계열 변화 분석 노력 부족
-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는 산출성과 중심으로만 단순 분석할 뿐, [문화생태계 현황자료용 지표]와 연계한 종합 분석은 부재
- 새로운 정책 아젠다 부상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신규 지표 도입,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제언 등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연구와 사업 현장 간 연계성 부족

- 연구기관과 사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만 적절한 조사 지표의 설계와 조사결과의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업 부족
- ※ 2014년부터 <서울문화지표조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관련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연구원 간 협업 진행 중임
- 조사결과를 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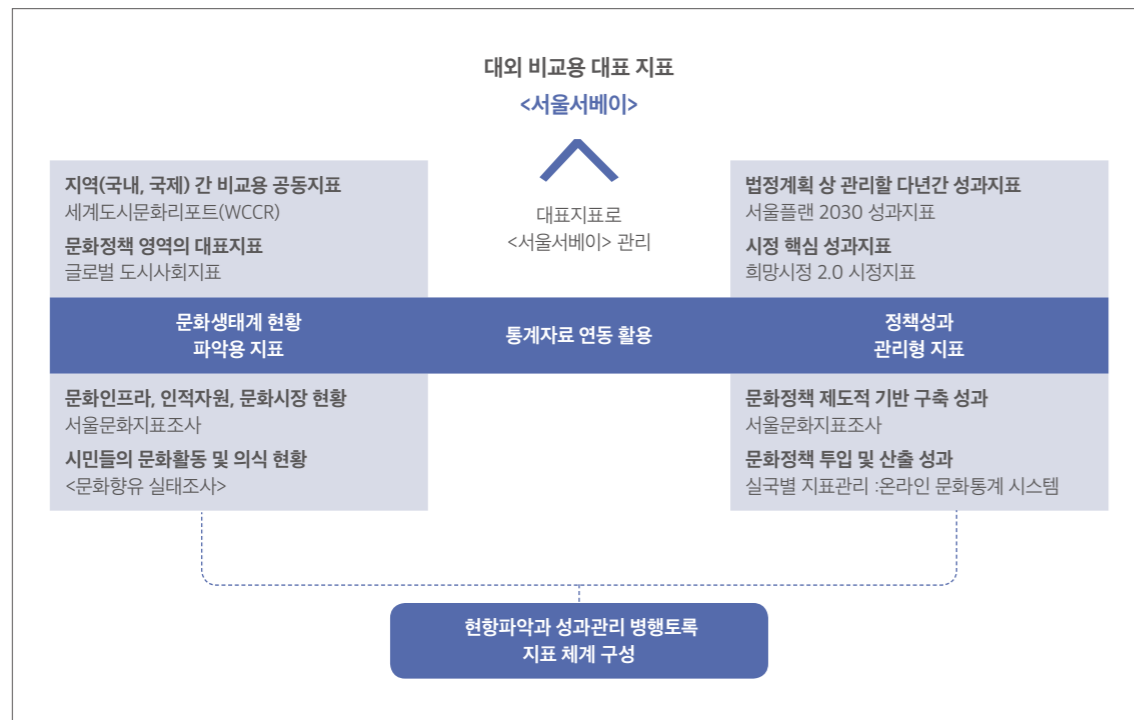
■ 지표조사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및 활용도 미흡

- 동일한 지표정의로 정기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시계열 비교가 어렵고,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는 매년 행정자료로 조사되지만 신뢰도 낮음
- 문화예술영역의 특성 때문에 문화시장, 문화인력 등의 기초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조사 조차도 지표정의에서부터 데이터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지표에 따라 세계도시, 중앙정부, 지역 문화통계 관리기관 등과의 지표정의 및 조사방식의 통일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통계 조사의 일부로는 실제 문화향유실태를 드러내거나 문화정책적 함의를 유추하기 어려움
- ※ 201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고관심자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3) 서울시 문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개선 방안

- [문화생태계 현황파악용 지표]와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의 병행 관리 및 [대의 비교용 대표 지표]의 적절한 구성 및 연계 관리 체계 마련
 - <서울서베이>의 문화부문 지표의 역할은 행정자료, 조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소비, 여가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도시정책 지표체계이므로 문화부문의 심화영역까지 포괄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서베이>는 문화부문 현황(문화산업과 문화생산 등)과 시민의 문화소비와 여가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지표>는 문화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과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성과를 관리하는 두 가지 목적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 중 개별 사업 실국 차원에서 관리할 행정자료는 <온라인 문화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실국별로 업데이트하여, 서울문화지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관리해야함
 - 글로벌지표, 국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위의 각 조사결과 중에서 핵심지표의 조사결과만 가져와서 [대표 지표]로 관리
- 두 영역을 종합/연계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심도 있는 분석 및 컨설팅 시행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정립하고, 설문조사와 서울문화지표조사를 통한 문화기반시설 현황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각 자치구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컨설팅 추진
- 문화지표 종합관리 체계 마련, 개별 지표들의 정의 및 데이터 수집방식 통일을 위한 연구 수행
 - 개별 지표의 추가 및 삭제 보다는 각 조사 간의 위계를 종합 조정하여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관리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함

<그림29. 문화통계 관리 체계(안)>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	--------------------------------------	-----------------------------------	---------------------------------------	-----------

■ 연구기관과 사업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업 관계 설정

<표30. 연구기관과 사업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 관계>

협력이 필요한 업무영역	연구기관 담당 역할 (서울연구원)	사업기관 담당 역할 (서울시 각 실국, 서울문화재단 등)
정책성과 분석	- 문화부문 정책환경 파악 - 문화부문 기초 통계 - 중점 시정 사업에 대한 시민 평가	- 정책성과 관리형 지표 중심으로 조사 담당 : 각 실국별 문화정책 성과지표 데이터 관리 - 온라인 문화통계 시스템 운영
신규 수요 반영 영역	- 신규지표 개발 - 국내외 비교를 위한 방법론 개선	- 해당영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지표 수요 제시 - 신규 지표의 현장 적용성 검증
세분화된 분석 및 정책 함의	- 문화영역과 다른 영역간 교차분석을 통한 문화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분석	- 고관심자 대상, 특정 지역 대상 조사 시행 -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해석 (※문화향유실태 분석모델 개발 중) - 자치구, 산하기관에 대한 분석 지원 및 정책 컨설팅
시계열 분석을 통한 문화생태계 변화 파악	- 시계열 분석(2003년~ 현재) - 문화환경과 시민 문화향유 변화 추적	- 회원 활용 시계열 분석이 가능토록 <문화정책 조사 시민 패널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에서 패널제 운영 중)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문화실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계·협업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

<표 31.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분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조사내용	시민들의 문화관람 및 향유, 참여·활동, 교육실태 등을 조사	예술 및 스포츠, 관광, 여가 등 제반 분야의 문화지표 조사	문화다양성 구성요소,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수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실태 조사

(4) 글로벌 도시비교지표에서의 문화지표 영역 개선에 관한 의견

- 글로벌 도시 간의 삶의 질과 행복, 도시경쟁력 등을 비교하는 다양한 지표체계가 있고 이들 지표체계에서 문화영역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
 - 삶의 질 비교: 개인 및 언론의 자유(머서), 문화활동 이용가능성(이코노미스트), 레저 시간 등 일과 생활의 조화(OECD)
 - 경쟁력 비교: 문화자원과 관광객 시설, 방문매력도, 교류 정도 등 관광측면 지표(모리)
 - 문화산업 수준 비교: 국제 컨벤션 개최 건수(모리), 문화상품 수, 인터넷 및 문화상품 사용빈도 등(EURO BAROMETER), 문화상품 및 서비스 생산량(유네스코)
 - 문화정책 핵심지표 비교: 문화참여율(유네스코, EURO BAROMETER), 문화자원 및 문화유산(유네스코, WCCR, 대부분 도시 문화지표)
- 문화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시민들의 문화소비 트렌드도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관련 영역의 지표를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여가시간, 일과 삶의 균형 등의 지표들은 사회/경제 영역과 연관성이 더 큰 지표로서, 문화영역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문화정책 수립에 참고할 배경지표로서의 의미는 큰 편임
- 도시비교 지표는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근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문화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여가 영역은 다음과 같은 지표체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30. 문화여가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영역	지표	산출방식	비고	
문화와 여가	여가시간	- 노동시간 이외 여가에 보내는 시간	정량	택1
	일과 삶의 균형	-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비율(단위: week 혹은 day 평균시간)	정량	
	문화 참여율	- 문화소비활동 경험률 - 문화참여활동 경험률	정량	
	문화환경 만족도	- 문화시설, 문화컨텐츠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정량	
	문화생활 만족도	- 문화참여 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정량	

구분	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진단	제3장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제4장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제5장 결론	
<참고> 국가단위 주요지표의 문화예술관련 지표현황					
국가 주요지표	- 국가주요지표 103개/보조지표 81개/국제비교지표 97개 - 이 중 문화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여가비지출률 정도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보조지표 / 국제비교지표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 자원	문화여가비지출률	1인당 문화재정	GDP 대비 가구 문화여가비지출률
			여가시간	성별 휴가활동률	일평균 여가시간 비율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여가만족도		
미디어 이용	생활체육참여율	성별 스포츠관람률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이용률	
e-나라 지표	- 영역별 주요 자료로서 740개 지표가 관리 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 자원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체육시설현황 및 1인당체육시설면적		
			공연/전시 횟수		
			공연장/문화회관등 문화시설 추이		
			관광수지 실적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		
			등록문화재 현황		
			무대전문인력 배출추이		
			문화산업현황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보급 추이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현황		
			문화재 발굴조사현황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문화재 지킴이 위촉 현황					
방송영상 전문인력 배출추이					
유네스코유산 현황					
전통사찰지정 등록현황					
주요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체육동호인클럽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국민여행총량					
공무원 관람객수					
독서인구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					
외래관광객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해외여행자수					
미디어 이용			가구 인터넷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매체별TV프로그램 시청 경험비율		
			원-바이러스 피해현황		
			인터넷중독률		
			인터넷이용률		
			주요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현황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해킹사고 신고 건수		
			기타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	
국민 삶의 질 지표	-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한 12개 영역 80개 지표 관리 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비물질 부문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동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동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용		

참고문헌

보고서

- 경기문화재단(2016) <2015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가승인통계 표준조사표 설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6) <예술관객 확대를 위한 비관객 세분화 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2016)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연구원(2014)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특별시(2017) <2016 도시정책지표조사>
영화진흥위원회(2017) <2016 극장 영화소비자 조사>, <2016 온라인 영화소비자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공연예술 경기동향조사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 인터넷이용자 실태조사>
UN(2016) <2016 World Happiness Report>

학술논문

- 강은주, 김연희, 이희선(2015). 여성고령자의 여가제약과 협상전략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87-116.
엄영호, 엄광호(2017).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145-169.
이유리, 박미석(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차민경, 최연식, 이창진(2015). 온라인 미디어 시대의 관객개발을 위한 문화자본, 정보자본, 사회 자본의 활용 전략 연구. **문화경제 연구**, 18(2), 99-129.

인터넷

서울통계 stat.seoul.go.kr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www.index.go.kr

통계청 사회조사 www.narastat.kr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연구

공동연구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연구기획 및 진행 총괄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정책연구팀
김해보, 남미진, 박은희, 성승환, 류지민

조사 및 분석 담당

김창영 (주)월드리서치 상무
고혜지 (주)월드리서치 연구원

조사협력

서울시문화정책과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주철환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분석기관 (주)월드리서치 디자인/인쇄 (주)인디엔피 indnp.com

서울문화재단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전화 02-3290-7133 이메일 suggest@sfac.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02-3290-7133)으로 문의바랍니다.